

1

January 2024
Vol.385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OLUMN
음악의 숲과
음악의 숲과



COVER STORY
2024 신년음악회



세계의 콘서트홀
보스톤 시포니콘
홀





바리톤 한규원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DECIMAL

2024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소프라노 박하나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세이교 김

2024. 1. 10.WED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년음악회 청룡이 나르샤

Program 대북과 풍물을 위한 협주곡
비나리
작곡 이동훈 / 대북 임원식 / 풍물 사물놀이 마당

남도민요와 국악관현악
성주풀이 - 액맥이타령 - 진도아리랑
편곡 배주희 / 남도민요 박성희, 정선희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 - 1.풍장 2.기원 3.놀이
작곡 박범훈 / 사물놀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이동훈
대북 임원식
풍물 사물놀이 마당
남도민요 박성희, 정선희
사물놀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4

2024. 1. 24 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무료(홈페이지 사전 예매, 1인 4매 한)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SUN	MON	TUE	W
<p>예매</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1	2	3
7	8	9	10
<p>부산아너스 플루트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17:00</p> <p>중 무료/부산아너스 플루트오케스트라 (010-2831-2836)</p>	15	16	17
21	22	23	24
<p>부산약사합창단 창단연주회 17:00</p> <p>중 부산시 약사회(010-2585-0206)</p>	29	30	31
28	29	30	31
<p>더 시네마 & 클래식-New World 19:00</p> <p>대 또모(02-540-2706)</p>			



WED	THU	FRI	SAT
3	4	5	6
		<p>◆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개막연주회 '스테판 피 재키브 모차르트&멘델스존 콘체르토 With 부산체임버페스티벌오케스트라' 19:30</p> <p>대 4만원 2만원 /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p>	<p>듀오 제겐의 세 번째 이야기 'Rhapsody in Blue' 17:00</p> <p>중 전석 2만원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10	11	12	13
<p>2024 신년음악회 19:30</p> <p>(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p>		<p>◆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Masters and Masterpieces I' 19:30</p> <p>대 4만원 2만원 /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p>	<p>오민겸 피아노 독주회 19:30</p> <p>중 초대/오민겸(010-2707-0981)</p> <p>◆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학교 실내악 축제' 17:00</p> <p>캠 전석 1만원 /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p>
17	18	19	20
	<p>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제12회 정기연주회 19:00</p> <p>중 전석 1만원 /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010-9944-8825)</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7회 정기연주회 19:30</p> <p>대 2만원 1만5천원 1만원 5천원 /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p> <p>웨이브 인 브라스 제2회 정기연주회 'PASSION' 19:30</p> <p>중 무료 / 웨이브 인 브라스 (010-4628-5369)</p> <p>◆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All about Tango: 이승민 x 친친탱고 x 파르티트 BCMS' 19:30</p> <p>캠 전석 2만원 /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p>	<p>제43회 부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p> <p>대 부산가톨릭합창단 (010-7169-0404)</p> <p>◆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폐막연주회 'Masters and Masterpieces II_양상블 오페라' 17:00</p> <p>캠 전석 2만원 /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p>
24	25	26	27
<p>2024 신년음악회</p> <p>(대, 1인 4매)</p> <p>(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p>	<p>제1242회 MBC 목요일음악회 19:30</p> <p>대 (사) 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 (760-1494)</p>	<p>낙센월석문화재단과 함께하는 'Musica Busan' 19:30</p> <p>대 3만원 · 2만원 · 1만원</p> <p>KNN방송교향악단 (850-9568)</p>	<p>2024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7:00</p> <p>대 초대 / (사) 송인문화재단 (010-4183-2293)</p> <p>◆ (재)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17:00</p> <p>중 8만원 2만원 /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유망주 음악회-Ensemble' 15:00, 19:30</p> <p>캠 무료 /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p>
31			

- (재)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p>1</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1</p>	<p>2</p>	<p>3</p>
<p>7</p> <p>추드시 댄스 컴퍼니 창단 및 정기공연 '일상에서 한국무용을 만나다' 19:00 <small>☎ 추드시 댄스 컴퍼니(010-5426-1185)</small></p>	<p>8</p>	<p>9</p>	<p>10</p>
<p>14</p> <p>어린이뮤지컬 '틀려도 괜찮아' 11:00, 13:30, 15:30 <small>☎ 전석 5만원(24개월 이상 관람)/극단예일 (02-555-0822~3)</small></p>	<p>15</p>	<p>16</p> <p>장애인음악회 19:00 <small>☎ 이수민(010-4220-9450)</small></p>	<p>17</p>
<p>21</p> <p>오리지널 과학마술콘서트 11:00, 14:00 <small>☎ 전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원더매직(070-4202-2200)</small></p>	<p>22</p>	<p>23</p>	<p>24</p>
<p>28</p> <p>대극장 NEW 뮤지컬 '번개맨_전설의 시작' 11:00, 14:00 <small>☎ 전석 6만6천원(24개월 이상 관람)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small> 가족뮤지컬 '슈퍼 히어로의 똥 닳는 법' 11:00, 14:00, 16:30 <small>☎ 전석 5만5천원 (쥬더화랑이엔티(1800-6567))</small></p>	<p>29</p>	<p>30</p>	<p>31</p>

ED	THU	FRI	SAT
3	4	5	6 2023 백지영 전국투어 콘서트 'BAEK SPACE' 18:00 대 15만4천원·13만2천원·12만1천원·11만원 (㈜밝은누리(1566-9621))
0	11	12	13 디즈니&지브리 영화음악 FESTA 17:00 대 8만8천원·6만6천원·4만4천원 아트 인 뮤직(02-525-4420) 어린이뮤지컬 '틀러도 괜찮아' 11:00, 14:00, 16:00 소 전석 5만원(24개월 이상 관람) 극단예일 (02-555-0822~3)
7	18	19	20 던전앤파이터 심포니 14:00 대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02-6292-9368, 9370) 오리지널 과학마술콘서트 11:00, 14:00 소 전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원더매직(070-4202-2200)
4	25	26	27 NEW 뮤지컬 '번개맨_전설의 시작' 11:00, 14:00, 16:30 대 전석 6만6천원(24개월 이상 관람)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가족뮤지컬 '슈퍼 히어로의 똥 닳는 법' 11:00, 14:00, 16:30 소 전석 5만5천원 (㈜더화랑이엔티(1800-6567))
1	전시실 회원 사우회 사진전 1월 9일(화)-1월 14일(일) 전시실 1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 전시 1월 25일(목)-1월 28일(일) 전시실 1, 2 • 문의: 부산시민회관 630-5200		



2024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2024. 1. 27 (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자 김강규



단장 변원탄



피아노 권준



특별연주 | 트럼펫 박다경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CONTENTS

1

월간문화예술정보지



26



34



38

- 08 **신년사**
함께 그려가는 앞으로의 미래
- 10 **신년특집**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4년 신년계획
- 24 **Column**
음악의 쓸모
- 26 **Cover Story**
2024 신년음악회
- 30 **거꾸로 보는 미술사 ㉔**
청룡의 해에 보는 한국의 용
- 34 **세계의 콘서트홀 ㉑**
북미 최고의 콘서트홀
보스턴 심포니홀
- 38 **서울통신원**
국내 첫 장애인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개관
- 41 **Preview**
- 44 **Review**
- 47 **Program Guide**
- 55 **New Book**
- 56 **BSCC News**

예술의 조대 January 2024 Vol.385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3년 12월 25일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이기종 홍보팀장 김명숙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장 정복업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함께 그려가는 앞으로의 미래

갑진년 새해를 맞으며

이정필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은 60갑자 중 41번째에 해당하는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입니다. 용은 12지신 중 유일한 상상의 동물로 신성한 능력과 용맹함을 상징하며, 특히 푸른 색을 띤 청룡은 네 개의 방위를 수호하는 사신(四神) 중 하나입니다. 갑진년 올해는 청룡의 상서로운 기운을 이어받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용감하게 헤쳐나가며 긍정적인 변화와 성공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해봅니다.

지난 2023년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선포한 ‘ESG경영 도입의 원년’입니다. 지난 한 해 (재)부산문화회관은 ‘환경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예술공간’이 되기 위해 모든 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실천과 노력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함께 그려가는 앞으로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재단 전 구성원의 뜻을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 그려나갈 재단의 새로운 모습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해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사화합을 이루었습니다. 또, 부산광역시가 지난해 주최한 ‘2023년 워라밸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어 부산고용노동청장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23년은 부산시민회관이 개관 5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부산시민회관에서는 부산시민회관의 50년 역사와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문화의 요람’으로 오랜 기간 함께 해온 부산민회관의 50돌 잔치에 많은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산시민회관은 올해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 문화계의 새로운 판도가 될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가 지난해 하반기,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콘서트홀로 각각 명칭을 확정짓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들어갑니다. 두 곳의 대형 전문공연장 개관이 가져올 큰 변화를 앞두고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이미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공연장 역할을 재정립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그동안 꾸준히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올 한 해도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 순수예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제작극장으로, 그리고 부산시민회관은 대중 장르 중심의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시민들과 만나겠습니다.

특히 제작극장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지난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체 브랜드 뮤지컬로 큰 호평을 받았던 ‘야구왕, 마린스’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올해 시민들과 다시 만납니다. ‘야구왕, 마린스’는 ‘야구의 도시’ 부산을 노래하는

창작뮤지컬로, 유소년 야구단의 감동 성장 스토리를 담아내며 특히 가족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매년 '오페라시즌'에 선보였던 제작 오페라도 올해 푸치니의 '나비부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19년 첫 제작 오페라였던 '리골레토'를 시작으로 지난해 '토스카'까지 그동안 4편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면서 제작극장으로서 수준높은 공연제작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도 국내 최정상급 출연진들과 제작진들이 참여하는 만큼 최고의 무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단은 그동안 열정과 재능을 갖춘 지역의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및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산지역 예술인과 함께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공연예술계의 창·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를 비롯하여 지역의 청년성악가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날개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 지역의 정상급 연주자들이 마련하는 실내악의 향연 '부산챔버페스티벌', 그리고 지난해 제작에 앞서 주·조연 배우 오디션을 진행했던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까지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예술인 인재 육성 및 지역 예술대학 발전 기반 확대를 위한 청년예술축제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관람객들을 위한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재)부산문화회관은 2024년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관객이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았던 주차장이 올해 개선사업에 들어가면서 주차공간 132면이 새롭게 조성되어 주차면 부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동안 주차면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악성 장기주차 차량을 발생하게 한 요금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주차관제시스템을 변경,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도 꺾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유희공간으로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했던 부산문화회

관 챔버홀 지하층과 부산시민회관 아트숍은 각각 '부산문화관 배움터'와 관람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특히 '배움터'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아카데미 공간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 프론트 환경 개선, 챔버홀 천장 개선, 대극장 노후 프로젝트(영상시스템) 교체 등 공연장 무대시설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사업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부산을 알려온 부산시립예술단은 전국 어디에 내봐도 손색이 없는 역사와 전통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2022년 창단 60주년과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2023년 창단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무용단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이어 올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 40주년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습니다. 오랜 세월, 시민들과 함께 해온 부산시립예술단은 올 한해도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도시 부산을 홍보하는 한편, 수준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나겠습니다. 새해에도 부산문화를 위해 땀 흘릴 부산시립예술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부산시립예술단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갑니다. 예술단 단원들의 연주와 더불어 음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커피가 있는 뮤직토크 '아지트', 예술단 단원들이 직접 무대 준비과정을 브이로그로 보여주며 관객과 소통하는 '연주자가 직접 전하는 백스테이지' 등 무대 밖 단원들과의 색다른 만남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올 한해도 시민의 행복과 문화의 가치가 공감하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공연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과 화평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상 에 서

(재)부산문화회관 2024 상반기 공연프로그램

공연예술의 생생한 감동을 전하기 위해 지난 한 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재)부산문화회관은 2024년 올해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역시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나누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재)부산문화회관이 매년 마련하는 신년음악회는 1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갑진년 새해를 활짝 열어 이번 '2024 신년음악회'는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새로운 시작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힘차고 희망적인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재일교포 3세 출신으로, 일본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지휘자 세이코 김(Seikyo Kim, 한국명 김성향)이 부산을 찾는다. 매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1월 5일부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과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펼치는 화려하고 세련된 실내악의 향연으로, 1월 5일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의 개막연주회를 시작으로 총 7차례 실내악의 성찬이 차려진다.

월드 콩쿠르를 석권한 국내외 아티스트들을 초청, 그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1세대 아이돌 피아니스트 임동혁(3월 5일)을 시작으로 베이스 연광철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3월 13일), 소



문 화 에 솔 로

프라노 황수미와 피아니스트 안중도(6월 19일)에 이어 플루티스트 김유빈(8월 28일)이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팬데믹 여파로 중단됐던 마티네 콘서트도 4년만에 다시 돌아온다. 브런치 콘서트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 한 낮의 공연으로 호평받았던 마티네 콘서트는 내년 3월 15일과 6월 28일 두차례, 차세대 지휘자 차웅과 원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정주영이 부산시립교향악단, KNN방송교향악단과 함께 오전 11시의 행복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그의 아들 사샤 마이스키(바이올린), 딸 릴리 마이스키(피아노)로 구성된 마이스키 트리오는 5월 8일 부산을 찾는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아름다운 영상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 지브리 OST'는 6월 15일 부산시민회관에서 펼쳐진다.



내년 상반기에는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세 편의 연극이 부산을 찾는다. 3월 1일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방송을 넘나들며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배우 김수로, 강성진 등의 앙상블이 빛나는 연극 '돌아온다'가 관객과 만난다. 4월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위태로운 중년들이 풀어내는 삶의 애환을 그린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가 선보인다. 6월 22일 부산시민회





관 소극장에서는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선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갈림길'에 선 여자가 무대에 오른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최초로 선보여 호평받았던 창작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는 내년 6월,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난다. 매년 '메이드 인 부산'

공연을 제작했으며 제작극장으로서 자리매김한 (재)부산문화회관이 처음 제작한 창작뮤지컬로, 부산의 문화 아이콘이자 국내 1위 인기 스포츠 '야구'와 세계가 주목하는 K-뮤지컬의 만남으로 제작에서부터 화제가 된 작품이다.

부산시민회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명작 발레 두 편이 무대에 오른다. 3월 16일과 17일, 이틀간 대극장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발레 '백조의 호수'를 국립발레단의 무대로 만날 수 있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과 더불어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중 하나이자 클래식 발레의 교과서와도 같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7월 12일과 13일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1994년 창단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최초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초연했던 유니버설 발레단이 19세기 황실발레의 황금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화려하고 정교한 무대로 부산 관객과 만난다.



내년에는 어린이들이 클래식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우선 어린이들과 클래식의 사이를 좁혀줄 새로운 클래식 공연 시리즈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가 첫 선을 보인다. 1월 27일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애니메이션 OST를 들려주며, 3월 23일과 5월 18일에는 각각 '오즈의 마법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주제로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아이 첫 클래식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는 2월 24일과 4월 20일 두차례 열린다. 이 밖에 가정의 달 5월에는 역사와 함께하는 뮤지엄 판타지 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가 5월 11일과 12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최근 들어 또 하나의 예술 장르로 자리잡기 시작한 게임 음악 OST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게임음악 콘서트'는 3월 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게임 음악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도하는 지휘자 진솔의 지휘로 음악과 영상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마치 게임 속에 들어가 직접 모험을 떠나는 듯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또, 지난해 오페라와 그림, 공연이 어우러지는 렉처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은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가 올해는 '미술관 옆 콘서트홀'(5월 10일, 7월 19일, 9월 6일)로 돌아온다.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던 아트 스토리텔러 이주헌과 클래식 전문 아나운서 손지현이 올해도 함께한다.



주차장 개선사업에서 휴식공간 조성까지 쾌적한 공연환경을 위한 개선공사 진행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찾는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로비 프론트 개선사업이 진행된다.(사진은 부산시민회관 로비 프론트)



2024년 올해,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주차장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챔버홀에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 공간 ‘배움터’가 새로 들어선다. 극장 규모에 비해 협소했던 대극장 로비 프론트는 고객동선을 고려한 쾌적한 매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대극장 노후 프로젝트(영상시스템) 교체, 챔버홀 천장 개선 등 무대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선사업도 진행된다. 또, 부산 시민회관에서 2019년부터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던 소극장 아트숍이 관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관람객들을 위한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재)부산문화회관이 2024년 새롭게 달라진 공연장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우선 그동안 부산 문화회관을 찾는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았던 주차장이 올해 개선사업에 들어간다. 우선, 주차동 지상층의 화단 철거로 하중을 줄이고 지하층 주요구조부 보강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철거된 공간은 주차지면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사에 따라 주차공간 132면이 새롭게 조성됨으로써 주차면 부족 해소에

▼ 부산문화회관 배움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람객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를 설치, 주차장 내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고 그동안 약성 장기주차 차량을 발생하게 한 요금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주차관제시스템을 변경,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도 꾀한다.

그동안 유희공간으로 공연장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챔버홀 지하 1층은 '부산문화회관 배움터'로 새롭게 거듭난다. 특히 이 곳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아카데미 공간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규모 레슨실과 연습실, 다목적실 등 13곳의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1월 10일 개관식을 통해 시민들과 첫 만남을 가진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아카데미 강좌 안내와 함께 부산시립예술단의 축하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한편, 또다른 유희공간이던 부산시민회관 아트숍은 소극장과 전시실을 찾는 관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이밖에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극장 로비 프론트 개선사업을 진행하다. 이번 사업에 따라 총 7개소의 프론트가 설치되면서 안내 및 발권에 따른 관객들의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미디어 월, LED스크



▲ 새롭게 조성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휴식공간



▲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았던 주차장이 올해 개선사업에 들어간다.

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수 있다. 또, 부산문화회관의 주요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사업을 추진, 공연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자체 안전 점검에 따라 마감재 처짐과 접합부 노후화 현상이 보이는 챔버홀 천장 개선공사도 함께 진행된다.

2 0 2 4

갑진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산시립예술단 2024년 신년계획

2022년 창단 60주년과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2023년 창단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이어 올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창단 40주년과 창단 30주년을 맞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오랜 세월, 시민들과 함께 하며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준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나왔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올 한해도 부산시립예술단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여러분 곁으로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 도약을 준비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23년을 마지막으로 최수열 예술감독이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24년,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새로운 예술감독이 선임될 때까지 백승현 부지휘자가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지난해 12월 14일, 최수열 예술감독의 마지막 무대인 제606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2024년 상반기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올 상반기에는 세계적인 거장 키릴 카라비츠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악가들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월 10일, (재)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하는 '2024 신년음악회'에서 관객들과 새해 첫 인사를 나눈다. 일본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지휘자 세이코 김과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소프라노 박하나, 바리톤 한규원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갑진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젖힌다. 1월 19일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24년 첫 정기연주회인 제60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 거인'이 펼쳐진다. 부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

고 최근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차세대 피아니스트 정규빈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 불안한 과도기가 아닌 기꺼이 즐겨낼 짧은 여정에 대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결의를 담아 말러의 '교향곡 제1번'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을 들려준다.

2월 27일, 러시아의 대표적인 민족음악 작곡가 보로딘의 기일에 맞춰 열리는 제608회 정기연주회 '보로딘을 위하여'에서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폴로베츠인의 춤'을 시작으로 그의 계보를 잇는 걸출한 러시아 음악가들의 레퍼토리가 이어진다. 한양대학교 교수이자 최고수준의 바톤 테크닉과 명징한 음악적 해석으로 사랑받는 최희준 수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아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을 연주하며, 아카데미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연주로 정평이 난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이 글라주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한다. 3월 22일 제609회 정기연주회 '고전적 낭만'에서는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주요한 계보 중 한 축을 이루는 슈만과 브람스의 작품들로 채워진다. 아내 클라라에 의해 초연되었던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은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꾸밈없고도 빛나는 피아니즘으로 사랑받는 피아니스트 임효선이 협연하며, 이어서 브람스의 교



부산시립교향악단

향곡 중에서도 명성이 높은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4월 19일에는 지난 2009년부터 영국 본머스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로 재직 중인 우크라이나 태생의 세계적인 지휘자 키릴 카라비츠가 부산 관객과 만난다. 키릴 카라비츠와 본머스 심포니는 BBC 프롬스 무대에 주기적으로 서오고 있으며, 지난 2019/20 시즌에는 베토벤의 해를 기념하며 런던 바비칸 센터에서 연주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젊은 거장 문태국이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제2번'도 만날 수 있다. 문태국은 제15회 성정전국음악콩쿠르 최연소 대상, 2011년 제3회 앙드레 나바라 국제첼로콩쿠르 우승,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 우승, 2019년에는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4위 등 국내외 수많은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첼리스트이다. 카라비츠가 자랑하는 리스트의 교향시 제6번 '마제파'로 무대를 시작하며, 스트라빈스키의 걸작 '페트르슈카'로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키릴 카라비츠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를 뒤인 4월 21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24 교향악축제'에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참가한다. 낮이 가장 긴 여름날(夏至)인 6월 21일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뜨거운 음악축제로 관객들과 만난다. 미국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존 애덤스의 '고속 기계를 탄 짧

은 주행(Short Ride in a Fast Machine)'에 이어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사랑받는 기타리스트 박규희가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으로 무대를 달구며, 베토벤 '교향곡 제7번'을 통해 공연장을 리듬의 향연으로 가득 채운다.

2024년 올해는 보다 다양해지고 특별해진 실내악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정기연주회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들려줌으로써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존의 '실내악공장'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올해부터는 '실내악 시리즈'로 관객들과 만난다. 단원들의 연주력을 더욱 가깝고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실내악 무대에서부터 외부의 실력있는 연주자들과의 앙상블, 그리고 정기연주회 협연자와 갖는 특별한 무대까지 보다 진화되어가는 실내악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팬데믹 여파로 중단되었다가 4년만에 돌아오는 마티네 콘서트(3월 15일)와 음악회 입장이 어려웠던 영·유아와 부모들을 위한 '우리아이음악회'(5월 10일),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미완성 음악회'(4월 18일, 6월 20일),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닌 솔리스트로서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한 '줌인 Zoom-in' 등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기획음악회 시리즈는 올해도 계속된다.



합창의 즐거움을 전하는 다양한 무대 부산시립합창단

2024년 을 한해 3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모두 9차례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은 합창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로 관객과 만난다.

올해 첫 무대로는 지난 2021년 첫 선을 보인 후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 또는 세계에서 활동중인 지휘자를 초청, 부산 관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선한 울림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무대로, 올해는 2022년 제64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코랄 퍼포먼스상을 수상하고 LA마스터코랄 지휘자로 있는 그랜트 거슨(Grant Gershon)이 부산을 찾는다.

3월 14일에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특별한 브런치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열리는 '화이트데이 로비 콘서트'에서는 화이트데이에 어울리는 로맨틱한 곡들로, 공연장을 찾은 연인들에게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한다. 가정의 달 5월에는 3일과 4일,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를 무대에 올린다. 동화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합창 뮤지컬로, 부산시립합창단 단원들의 합창과 연기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지난해에도 전래동화를 엮어 만든 창작음악극 '옛날 옛적에'

로 공연장을 찾은 가족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음악극으로서의 더욱 풍성한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 청소년교향악단과 2310밴드가 연주를 맡아 무대의 완성도를 높인다.

매년 6월이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사와 레퀴엠 음악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는 베르디 '레퀴엠'으로 호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넋을 기린다. 6월 27일 열리는 이번 무대는 특히 부울경 경제동맹 출범을 기념하는 부산·창원 교류음악회로,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합창단과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그리고 소프라노 나유선,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바리톤 사무엘 윤 등 지역의 솔리스트들이 함께 출연, 관객들에게 안식과 평안의 시간을 선사한다. 부산시립합창단은 부산공연에 앞서 6월 25일 창원시민들과 먼저 만난다. 7월 18일에는 지난 2005년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 '2024 Summer Fantasy'가 펼쳐진다. 'Summer Fantasy'는 매년 여름, 클래식 위주의 딱딱한 공연에서 벗어나 관객과 합창으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된 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한 무대로, 주옥같은 국내가요를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주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특히 올해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음악대학 재학생 등 지역의 차세

대 음악인들이 함께하며,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대표적인 명곡을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위해 6개의 악장으로 편곡한 색다른 작품을 들려준다.

하반기에는 전국 창작 작·편곡 합창작품 공모를 통해 신예 작곡가들에게 작품 발표의 기회

를 제공하는 ‘창작 합창작품 공모 결선 연주회’(9월 12일)와 매년 ‘현대 음악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합창음악을 연주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의 ‘현대합창의 밤’(11월 1일), 그리고 2024년을 마무리하며 한국에서는 처음 연주하는 현대 오라토리오 ‘The Ordewing of Moses’(12월 5일)를 만날 수 있다. 이밖에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들과 함께하는 합창축제 ‘제34회 부산합창제’는 10월 29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춤으로 상상, 그리고 Human Dance 부산시립무용단

“2023년은 창단 50주년을 맞아 ‘The 50th, Time to Dance’라는 주제로 시즌 공연과 기념사업을 통해 무용단의 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더불어 미래를 내다보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함께 축하해주고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단 5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는 한해를 보냈던 부산시립무용단은 2024년 올 한해 초심의 마음과 더욱 깊어진 걸음으로 또 다른 춤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겠다는 각오로 갑진년 새해를 맞았다.

2024년 올해 부산시립무용단의 시즌 공연의 기조는 ‘춤으로 상상, 그리고 Human Dance’. 부산시립무용단은 다양한 문화와의 조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에 소통과 상생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인간성 회복과 자기주도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올해 정기공연은 5월과 10월 두차례 예정되어 있다. 5월 17일과 18일에는 ‘춤과 사람, 삶의 무용’을 주제로 하는 신작공연 ‘The Man_장부의 삶’, 10월 25일과 26일에는 지역 예술의 특화와 교류를 통

한 상생의 무용교류전 ‘South Breeze_남풍’이 펼쳐진다. ‘South Breeze_남풍’은 이정윤 예술감독이 지난 2019년, 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이자 수석안무자 선정을 위한 경연무대에서 선보여 화제가 된 작품이다. 당시 다양한 예술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그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연출과 안무로 호평받은 작품으로, 5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에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또, 춤이 관객의 삶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춤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이정윤의 댄스살롱’(7월 26일-27일)과 단원들의 뛰어난 춤 기량에 더하여 춤 안무가로서의 성장을 응원하는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STEP>’(12월 13일-14일)도 2024년 계속된다. 이 밖에 창작무대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레퍼토리를 확보하는 콘텐츠 제작과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윤 예술감독과 부산시립무용단은 2024년에도 불확실성의 시대, 변화와 진화의 시대를 맞아 춤문화예술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공공으로서의 무용단의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창단 40주년,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지난 1984년 창단 후 그동안 전통 국악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는 한편, 우리음악의 대중화 및 현대화 작업에 꾸준히 힘써오며 국내외 한국 전통문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동훈 예술감독이 새롭게 선임되며 새로운 변화를 맞았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창단 40주년을 맞는 2024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올 한해 창단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우선 창단일인 5월 23일에는 '불혹의 나이, 100년을 꿈꾸며...' (제225회 정기)라는 부제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지난 40년 동안 위촉한 작품들을 모아 영상과 함께 과거 40년을 되돌아보는 '부산시립위촉 창작곡 메들리'(김창환 작, 편곡)와 앞으로의 새로운 미래를 담은 위촉곡 '불혹의 나이, 100년을 꿈꾸며'(이정호 곡, 초연)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역대 OB단원들의 연주로 들려준다. 7월 25일, 두 번째 기념연주회에서는 한국음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국악계의 거장 박범훈이 직접 지휘하는 '우리음악의 거장 박범훈'(제226회 정기)이 펼쳐진다. 이날 무대에서는 국악의 대

중화에 한 획을 그은 그의 대표곡들이 연주되며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합창단이 특별출연하여 무대의 풍성함을 더한다.

이에 앞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월 24일 '2024 신년음악회'로 관객들과 올해 첫 만남을 갖는다. 갑진년 새해,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통음악의 선율로 전하며, 2024년 한 해 부산 시민 모두의 무병장수와 복을 기원한다. 3월 21일 열리는 제224회 정기연주회 '내일은'은 지난해 11월, 부지휘자로 취임한 김경수가 시민들과 처음 만나는 무대로, 랩퍼 정상수, 대중가수 정홍일이 출연하여 대중 속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간다. 이 밖에 10월 17일 제227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청춘歌樂'이라는 부제로 판소리 오단체, 정가 오윤영 그리고 퓨전그룹 Aux 등 국악계의 젊고 핫한 예술가들의 무대가 펼쳐지며, 12월 18일에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제228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가 열린다. 특히 국악칸타타 '부산포 사람들'로 꾸며지는 송년무대는 부산의 역사와 부산시민들의 삶과 애환을 판소리와 경기민요, 정가, 대합창에 담아내면서 창단 40주년을 맞았던 2024년을 의미있게 마무리한다.

올해는 다양한 관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음악회가 개최된다. 2월 27일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하는 특별한 브런치 콘서트 '국악 Salon'이 펼쳐진다. 오전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휴식과도 같은 무



대로, 8090을 대표하는 레트로 감성의 가수 최성수와 함께 8090 국악관현악을 대표하는 명곡 '합주곡 제3번'(김희조 곡)을 비롯해 드라마 OST 메들리, 시낭송 등 친근한 무대로 꾸민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8일과 9일에는 국악 마리오네트 인형극 '영도의 사계'가 펼쳐진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을 주제로, 쓰레기 무단투기의 문제점을 어린이 시각에서 그려낸 '영도의 사계'는 특히 부

산 영도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마리오네트가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리오네트 인형극단 솔과 히베, play 사콘느가 함께한다. 6월 27일 '퇴근길 음악회'는 바쁜 일상과 힘든 업무에 지친 시민(직장인)들을 위한 무대로, 퇴근길 누구나 들러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과 위로를 전하는 무대이다. 9월 7일에는 국악 재즈 산책 'Autumn in Busan'이 펼쳐진다. 초가을 문턱, 아름다운 재즈 선율이 국악과 만나는 무대로, 부산에서 활동하는 재즈 밴드가 대거 출연한다. 이밖에 차세대 국악연주자들을 위한 제49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는 11월 26일 열린다.

감동을 주는 다양한 무대 부산시립극단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연되어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던 '크리스마스 캐롤'의 마지막 앙콜무대와 함께 2023년을 마무리한 부산시립극단은 2024년 새해에도 감동을 주는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캐롤'은 김지용 예술감독이 재구성과 작사, 연출을 맡아 기존 작품의 틀을 깨고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당시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하는 등 지난 3년동안 관객들로 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부산시립극단은 올 한해도 '명작극장, 창작극장, 가족극장'이라는 기조로, 극단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계속 지켜나간다. 우선 '가족극장'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출신의 어린이들이 직접 출연하는 뮤지컬 '어린왕자'와 명작 동화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해방자 신데렐라'를 선보인다.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공연예술활동의 직접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



부산시립극단

해 부산시립극단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2월, 아카데미 첫 작품인 '피터팬'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2월 3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는 '어린왕자'에서는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3개월간의 트레이닝을 거쳐 극단 단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해방자 신데렐라'는 앞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미운오리새끼'의 후속 프로젝트로, 미국의 저술가이자 여권운동가인 리베카 솔닛이 쓴 미래 세대를 위한 동화이다. 어린이 전용극장인 사랑채극장에서 9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장기 상연된다. 특히 이 두 작품은 관객의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제작공연으로, 부산시립극단의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객층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자 마련된 무대이다.

‘창작극장’에서는 시대를 앞서간 문제적 여성인 나혜석의 삶과 예술세계를 그린 음악극 ‘나혜석’(제77회 정기공연)을 선보인다. ‘나혜석’은 지난 2021년 실험실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선보인 후 지난 2022년 제73회 정기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난 바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역무용수와 협업하는 총체극으로,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계속된다.

‘명작극장’에서는 3월 14일부터 사흘간 제76회 정기공연으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가 무대에 오른다. 특히 이 작품은 지난 26년간 부산시립극단 무대감독으로 재임한 정순지 무대감독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무대로, 직접 연출까지 맡아 본인만의 색깔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제78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의 주제는 서사극 이론과 실재를 정립한 브레히트다. 그의 작품 중 ‘코카서스의 백묵원’(11월 15일-16일)과 ‘사천의 선인’(11월 22일-23일)을 만날 수 있으며, 두 작품의 연출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립극단은 그동안 공연 레퍼토리를 즉흥적으로 결정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사전에 공연 계획을 수립, 정기공연 일정 사이에 특별공연을 배치하여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막는 등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극단운동을 가져오고 있다. 2024년부터는 정해진 공연일정을 기반으로 관객들이 극단 공연을 가장 알뜰하게 관람할 수 있는 조기예매 티켓을 도입할 예정이다.

역사와 전통에 어울리는 합창단으로 성장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난해 창단 50주년을 맞았던 부산시립소년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녀합창단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천경필 신임 수석지휘자와 함께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며 긴 역사와 전통에 어울리는 최고의 합창단으로 성장하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 1973년 3월 창단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그동안 국내외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합창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 한해 5차례 정기·특별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첫 무대는 3월 30일 열리는 ‘프렌들리 콘서트’로,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함께 한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2003년부터 ‘프렌들리 콘서트’를 통해 전국의 소년소녀합창단과 교류하며 합창을 통한 우정을 쌓아오고 있다. 이번에 부산을 찾는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996년 1월 창단 후, 2002년 부산 세계합창대회 한국 최초 어린이 부문 금메달을 수상하고 2022년 제4회 제주 세계청소년합창페스티벌&경연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1982년 창단된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2014년 유엔 유네스코 산하 세계합창연맹(IFCM)에서 개최한 ‘세계합창 심포지엄 및 합창축제(WSCM)’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참가했으며, 201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잘츠부르크,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참가, 수준높은 합창음악을 선보인 바 있다.

5월 24일과 25일, 제163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세계평화의 염원과 미래를 노래하는 대합창곡 ‘창작칸타타 Peace’를 들려준다. 우리에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날으는 양탄자’로 유명한 작곡가 우효원이 작곡한 곡으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장대한 평화의 서사를 노래한다. 9월 7일 열리는 제164회 정기연주회 ‘Mother 어머니’에서는 언제 들어도 그리운 그 이름 ‘어머니’를 주제로 한 무대가 펼쳐진다. 어머니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합창과 안무, 영상 등이 조화를 이루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가슴 찡한 감동을 전한다. 12월 14일 열리는 제165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파티’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무대로, 아카펠라 고전합창과 즐거운 가곡합창, 그리고 다양한 캐롤과 겨울 음악 메들리로 저물어가는 2024년을 마무리한다.

이밖에 청소년 합창문화의 발전과 합창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해온 제35회 부산청소년합창제는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합창축제로 펼쳐진다.

창단 30주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매년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았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그동안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극대화하고 음악적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내외 정상급 협연자를 초청,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여왔다. 또한 한국과 부산시의 문화 사절단으로서 2001년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 문화회관 연주를 시작으로 2007년 대만 타이중과 가오슝, 2009년과 2011년, 2014년 일본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 홀 공연, 2010년에는 미국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2012년 베트남 호치민 오페라하우스, 2013년 중국 푸저우 복건대극원 오페라 홀 등 해외에서 성공적인 연주를 마치며 현지 관객의 뜨거운 갈채와 언론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2018년에는 유리시아 청년대장정의 마지막 기착지인 러시아 상트페테스부르크에서 한-러 수교의 밤을 갖는 등 한국과 부산시의 문화 사절단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미래의 촉망받는 젊은 음악인을 발굴, 그들의 음악적 소양을 키우는 동시에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경험과 비전을 제시하며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24년,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해 2월 취임한 수석지휘자 백승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타지역 청소년교향악

단과의 교류 및 단원들의 연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교향악단의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올해 3차례 예정된 정기연주회(3월 19일, 9월 10일, 12월 10일)는 음악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레퍼토리들로 구성, 단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기획 연주회에서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유망주음악회(1월 27일, 6월 22일, 10월 5일)가 세차례 펼쳐지며, 오디션을 통해 연주 기량이 우수한 단원들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협연 기회를 제공하는 ‘솔로리스트들의 축제’는 5월 21일 열린다. 또한 다양한 시민들과 호흡하고 문화소의 지역을 찾아가 음악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찾아가는 공연’, 청소년을 위한 예술 교육공연도 올 한해 계속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24년 올 한해도 젊은 열정으로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24 Performance Calender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민화협관 대극장	기획 1/10(수) (재)부산문화회관 2024 신년음악회		3/5(화)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3/9(토) 게임음악 콘서트 3/13(수)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연광철&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3/15(금) 2024 마티네 콘서트 I		5/8(수) 미샤 마이ски 첼로 리사이틀	6/19(수)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황수미&안중도 듀오콘서트' 6/28(금) 2024 마티네 콘서트 II 6월경 창작뮤지컬 '아구왕, 마린스'
	예술단 1/19(금) 교향 '부산시향, 거인' (제607회 정기) 1/24(수) 국악 2024 신년음악회 '청룡이 나르샤'(특별)	2/27(화) 교향 '보로딘을 위하여' (제608회 정기) 2/29(목) 합창 '유명 지휘자 초청연주회'(특별)	3/14(목) ※대극장 로비 합창 '화이트데이 로비' 콘서트(특별) 3/19(화) 청소년교향악(제73회 정기) 3/21(목) 국악 '김경수 부지휘자 취임연주회'(제224회 정기) 3/22(금) 교향 '고전적 낭만'(제609회 정기)	4/18(목) 교향 '미완성음악회 I'(기획) 4/19(금) 교향 '부산시향과 키릴 카라비츠'(제610회 정기)	5/3(금)-4(토) 합창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제192회 정기) 5/10(금) 교향 '우리아이음악회'(기획) 5/17(금)-18(토) 무용(제89회 정기) 5/21(화) 청소년교향 '솔로리스트들의 축제'(특별) 5/23(화) 국악 창단 40주년 기념 '불혹의 나이, 100년을 꿈꾸며...' (제225회 정기) 5/24(금)-25(토) 소년소녀 '창작칸타타 Peace'(제163회 정기)	6/20(목) 교향 '미완성음악회 2'(기획) 6/21(금) 교향 '하지축제'(제611회 정기) 6/27(목) 합창 '베르디 레퀴엠' (제193회 정기)
민화협관 대극장	기획 1/5(금), 1/9(화), 1/12(금), 1/16(화)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1/27(토)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I '키즈 시네마 with 애니메이션 OST'		3/1(금)-2(토) 연극 '돌아온다' 3/23(토)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II '오즈의 마법사'	4/6(토)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5/10(금) 미술관 옆 콘서트홀 I '숲의 정령' 5/18(토)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III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예술단	2/3(토)-4(일) 극단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어린이왕자'(특별) 2/6(화) 교향 '실내악시리즈 1'(기획) 2/27(화)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Salon' (특별)	3/8(금) 교향 '실내악시리즈 2'(기획) 3/14(목)-16(토) 극단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제76회 정기) 3/30(토) 소년소녀 '프렌들리 콘서트'(특별)		5/8(수)-5/9(목) 국악 마리오네트 인형극 '영도의 세계'(특별) 5/24(금) 교향 '부산시향의 중인 (Zoom-in) 1'(기획)	6/12(수) 교향 '부산음악콩쿠르 수상자 음악회' 6/22(토) 청소년교향 '유망주음악회'(특별) 6/27(목) 국악 '퇴근길 음악회'(특별)
민화협관 대극장	챔버홀 1/13(토), 1/19(금), 1/20(토)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1/27(토) 청소년교향 '유망주음악회'(특별)	극장 개선공사				
	사랑채극장	극장 개선공사				
시민회관 대극장	기획		3/15(금)-16(토)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5/11(토)-12(일) 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6/15(토)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 지브리 OST
	예술단				5/18(토), 5/24(금)-25(토), 5/31(금) 극단 '음악극 나혜석'(제77회 정기)	6/1(토) 극단 '음악극 나혜석' (제77회 정기)
시민회관 스킵극장	기획 2/24(토)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시리즈 I '홍학의 무도회'			4/20(토)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시리즈 II '악어의 양치시간'		6/22(토)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예술단					
야외마당	시민회관					
순회공연		2/20(화)-21(수) 합창 '제주국제합창제' (제주아트센터)		4/4(목) 국악 '2024 봄꽃음악회' (경남문화예술회관) 4/21(일) 교향 '2024 교향악축제' (서울 예술의전당)		6/26(화) 합창 '베르디 레퀴엠(창원)

*기획공연은 상반기 일정만 게재합니다. 이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p>7/5(금) 청소년교향 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특별)</p> <p>7/18(목) 합창 '2024 Summer Fantasy_퀸 심포니'(특별)</p> <p>7/19(금) 교향(제612회 정기)</p> <p>7/25(목) 국악 창단 40주년 기념 '우리음악의 가장 박범훈'(제226회 정기)</p>		<p>9/6(금) 교향(제613회 정기)</p> <p>9/7(토) 소년소녀 'Mother 어머니'(제164회 정기)</p> <p>9/10(화) 청소년교향(제74회 정기)</p>	<p>10/1(화) 교향(제614회 정기)</p> <p>10/17(목) 국악 '청춘 歌樂'(제227회 정기)</p> <p>10/25(금)-26(토) 무용(제90회 정기)</p> <p>10/29(화)-31(목) 합창 '제35회 부산합창제'(특별)</p>	<p>11/1(금) 합창 '현대합창의 밤'(특별)</p> <p>11/7(목) 교향(제615회 정기)</p> <p>11/8(금)-9(토) 소년소녀 '제35회 산청소년합창제'(특별)</p> <p>11/21(목) 교향 '미완성음악회 3'(기획)</p> <p>11/22(금) 교향(제616회 정기)</p>	<p>12/5(목) 합창 '현대 오라토리오 The Ordering of Moses'(제194회 정기)</p> <p>12/10(화) 청소년교향(제75회 정기)</p> <p>12/14(토) 소년소녀 '크리스마스 파티'(제165회 정기)</p> <p>12/18(수) 국악 2004 송년음악회 '국악칸타타 부산포 사람들'(제228회 정기)</p> <p>12/19(목) 교향 '미완성음악회 4'(기획)</p> <p>12/20(금) 교향(제617회 정기)</p>
<p>7/19(금) 미술관 옆 콘서트홀Ⅱ '젊음과 바다'</p>	<p>8/28(수)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Ⅳ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p>	<p>9/6(금) 미술관 옆 콘서트홀Ⅲ '해어집과 그리움'</p>			
<p>7/26(금)-27(토) 무용 '이정윤의 댄스살롱'(특별)</p>	<p>8/23(금) 교향 '심아음악회 1'(기획)</p>	<p>9/7(토) 국악 재즈산책 'Auyum in Busan'(특별)</p> <p>9/12(목) 합창 '창작 합창작품 공모 결선자 연주회'(특별)</p>	<p>10/25(금) 교향 '제8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기획)</p>		<p>12/6(금) 교향 '심아음악회 2'(기획)</p> <p>12/13(금)-14(토) 무용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_디딤&STEP'(특별)</p>
			<p>10/5(토) 청소년교향 '유망주 음악회'(특별)</p> <p>10/11(금) 교향 '실내악시리즈 3'(기획)</p>	<p>11/8(금) 교향 '부산시향의 줌인 (Zoom-in) 2'(기획)</p> <p>11/26(화) 국악 '제49회 청소년 협연의 밤'(특별)</p>	
		<p>9/7(토), 9/21(토), 9/28(토) 극단 가족극장+예술교육 '해방자 신데렐라'(특별)</p>	<p>10/3(토), 10/5(토), 10/9(토), 10/12(토) 극단 가족극장+예술교육 '해방자 신데렐라'(특별)</p>		
<p>7/12(금)-13(토)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p>					
				<p>11/14(금)-15(토), 11/22(금)-23(토) 극단 명작극장(제78회 정기)</p>	

음악의 쓸모

박진홍 음악평론가



음악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저기 들려 오는 새들의 지저귐과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흉내 내던 것이 점점 크레센도 되어 더 정교하고 웅장한 음악이 되었다. 그리하여 음악이 전하는 온갖 종류의 자극에 울고 웃으며 감동하고 전율한다. 음악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힘든 일을 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노동의 고단함도 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서로 어우러져 두드리

고 노래하는 가운데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낀다. 음악은 인간의 염원을 절대자에게 닿게 하는 도구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고통받지 않고 평안하기를 그들이 믿는 누군가에게 기도할 때 음악은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시는 말과 글로, 음악은 소리로 세상의 모습을 담고, 더 나은 인간의 삶을 고민하고 노래했다. 아르놀트 쇤베르크. 그는 20

세기 초,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응축된 에너지를 터트려 무조 음악, 나아가 12개의 반음에 평등함을 주는 방식으로 현대음악의 시작을 알렸다. 그 시기 사회에는 식민지의 확장, 전쟁의 발생과 위협,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의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평화로운 앞날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쇤베르크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기괴해 보이기까지 한 음악을 발표했다. 음악이 현실의 고통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받고 이겨낸 우리 민족이지만 가장 큰 아픔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칼을 겨누고 죽고 죽였던 전쟁, 6·25가 아니겠는가. 1952년 8월, 당시 경남 진주 출신의 젊은 작곡가 이상근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이겨내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를 작곡했다. 시인 유지환 선생은 스스로 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집 '보병과 더불어'를 펴냈고, 당시 마산여고에 재직하던 이상근 선생은 이 시집에서 영감을 받아 4개의 악장을 가진 교향곡 형식으로 작품을 창작했다. 이 작품은 2006년 기나긴 여정을 거쳐 초연되었는데, 1952년 초연을 위한 과정에서 악보가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사회상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대규모 음악 작품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21세기를 앞둔 1999년,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태인 음악가 다니엘 바렌보임과 팔레스타인 출신의 미국 영문학자 에드워드 사이드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를 결성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주변 아랍국 출신의 음악가들로 단원을 구성한 이 오케스트라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음악에 실어 전했다.

지구의 환경이 극단적인 위기에 처했다.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환경 오염으로 닥칠 위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사람들이 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루도비코 에이나우디가 북극해의 빙하 한가운데 빙하 파편 모양의 좁은 세트를 띄우고

그 위에서 '북극해를 위한 비가'를 피아노로 연주했다. 음악은 비장하면서도 담담하였다. 그 음악에 아픈 치부를 드러내며 흘러 내리는 빙하의 굉음이 색다른 성부를 올려놓았고, 지구 온난화의 심각함을 마음에 각인시켰다. 바이올리니스트 파트리샤 코파친스카야는 베를린 슈타츠헤펠레의 단원들이 창단한 변화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기후 콘서트를 열며 기후 변화에 관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요즘 부산의 공연장은 대관이 빈 날이 없을 정도로 성시를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음악이 넘치는 부산이라서 참 좋다. 하지만 기후, 환경, 종전, 기아, 불평등, 빈곤 등 좁게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음악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을 향유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고대 시대부터 피타고라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도 음악이 가진 질서와 규칙, 율바름이 인간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에 더해 음악이 세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어떨까. 음악을 무대 위에 올리는 것은 음악가들이니 그들이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지구와 삶의 고통 속에 방치된 사람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왜?'라고 하지 말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문제이니까 말이다.

음악은 직설적인 언어가 아니다. 대단히 은유적이어서 듣는 사람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하지만 음악을 듣고 느끼는 과정은 머리와 마음을 동시에 울림으로써 훨씬 강력한 힘을 지닌다. 무너지는 빙하를 바라보며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을 보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떠올리고 그 심각성을 느끼는데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비인간적인 전쟁을 멈추어야 한다', '기아에 허덕이는 지구촌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짧은 메시지가 음악과 함께 전해진다면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음악이 오래도록 마음 속에서 사람이 응당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울림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이 음악의 쓸모 중 하나가 아닐까.

음악으로 전하는 신년 인사

갑진년 새해를 활짝 열어줄 2024 신년음악회

갑진년(甲辰年) 새해의 첫 걸음을 내딛는 1월, 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24 신년음악회'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신년인사를 전한다.

1월 10일 열리는 (재)부산문화회관 '2024 신년음악회'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새로운 시작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힘차고 희망적인 프로그램으로 갑진년 새해를 활짝 열어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일본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지휘자 세이코 김과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소프라노 박하나, 바리톤 한규원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1월 24일에는 우리 전통국악의 맥을 잇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24 신년음악회 '청룡이 나르샤'로 관객과 만난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의 밝은 기운을 담아 신명 넘치는 무대를 펼친다.

◆
 (재)부산문화회관
2024 신년음악회

일 시 1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지휘자 세이코 김이 지휘하는 이번 '2024 신년음악회'에서는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인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들려주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4'에 이어 소프라노 박하나와 바리톤 한규원이 다채로운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로 신년의 흥겨움을 더해준다. 전 SBS 아나운서이자 클래식 애호가인 박찬민 아나운서가 해설을 맡아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이번 무대의 지휘자 세이코 김(한국명 김성향)은 제일교포 3세 출신으로, 1998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젊은 지휘자를 위한 국제 니콜라이 말코 콩쿠르에서 우승,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리며 '일본 클래식계의 프린스'라 불리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가나자와 오케스트라 앙상블의 '예술적 동반자'로 지냈으며, 지난 2013년에는 벨기에 브뤼헤의 플랑드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기도 했다. 요코하마의 가나자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활동에 이어, 최근에는 젊은 음악인들로 구성된 '카메라타' 앙상블을 창단,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이코 김은 '2008년 교향악축제'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한 이후 부산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지휘 세이코 김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한수진



소프라노 박하나



바리톤 한규원



해설 박찬민

등을 지휘하며 세밀한 지시와 풍부한 감정, 강렬한 에너지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은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과 함께 음악평론가상, 방송 청취자상 등 7개의 부상을 받으며 크게 주목받았다. 우리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로부터 '비범한 테크닉, 다양한 표현력, 진정성 있는 음악이 인상 깊은 바이올리니스트'라 극찬받은 한수진은 정명훈이 지휘하는 코리안 심포니와의 연주로 한국 무대에 데뷔했으며, 안드라스 쉬프, 기돈 크레머, 프란스 헬머슨 등과 실내악을 연주하고 런던 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등과 협연하며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수진은 2023년 대한민국예술원 젊은예술가상 음악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보적인 예술성으로 최상의 음악을 선보이는 소프라노 박하나는 어려서부터 탁월한 음악성을 인정받으며 각종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매력적인 음색으로 관객을 사로잡은 그녀는 다양한 오페라에서 다채로운 배역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Wolf Trap Opera에서 주역으로 출연한 '라보엠'을 통해 워싱턴 포스트와 워싱턴 타임즈로부터 '맑고 기쁨을 주는 목소리로 캐릭터 소화능력이 뛰어나며 오페라의 정서적 중심에서 빛을 발하였다', '유연하고 표현력 있는 목소리로 유명 성악가들의 공연에서 확연히 눈에 띄는 해석이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21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체부장관상, 2019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 수상,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쿨 Great Lakes Region 우승, 코벳 오페라 콩쿠르 1위, 국제가공콩쿠르 대상 및 청중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는 부산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고급스럽고 힘찬 소리로 평론가와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바리톤 한규원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상근단원 Adler Fellowship에 한국인 최초로 발탁되어 다수의 작품에 출연한 후 프랑스 Strassbourg 국립 오페라단과 유럽 데뷔, 도쿄의 신국립극장에서 일본 데뷔하며 활동범위를 넓혀왔으며 암스텔담 Concert Gebaouw, 파리 상제리제 극장, 도쿄 산토리 홀, 뉴욕 카네기 홀 등 세계 유명 극장에서 공연했다. 한국에서는 국립오페라단, 서울시 오페라단, KBS 교향악단 등 유수 단체와 공연했으며 열린음악회에 다수 출연하고 KBS 드라마 '대왕세종의 OST를 녹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한화불꽃합창단 상임지휘자, 서울 그린트러스트 홍보대사로 있으며 고려대학교, 세종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하나가 '내 맘의 강물'(이수인 곡), '너무나 뜨겁게 입맞춤하는 내 입술'(레하르 오페레타 '쥬디타')을, 바리톤 한규원이 '투우사의 노래'(비제 오페라 '카르멘'), '나를 잊지 말아요'(쿠르티스 곡)를 들려주며, '입술은 침묵하고'(레하르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Tonight'(번스타인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은 박하나, 한규원의 이중창으로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24 신년음악회

청룡이 나르샤

일 시 1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무료(홈페이지 사전 예매, 1인 4매)



2024년 갑진년 새해,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통음악의 선율로 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24 신년음악회로, 앞날의 행복을 기원하는 비나리와 일년 열두 달 모든 액을 풀어줄 액맥이 타령으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신년 덕담을 전한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대북과 풍물을 위한 협주곡 '비나리'로, 성남시립국악단 타악 부수석 임원식의 대북과 사물놀이 마당의 풍물 연주로 들려준다. '비나리'는 원래 고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로, 이번 무대에서는 웅장한 대북의 울림을 시작으로 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할 수 있도록 이동훈 예술감독이 새롭게 작, 편곡하였다. 대북 연주자 임원식은 지난해 뉴욕 링컨센터 공연을 비롯해 12개국 해외연주를 통해 우리의 신명을 세계에 알렸으며, TV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등 다수 방송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팽과리 최찬균, 징 배정찬, 장구 김성대, 북 방성혁으로 구성된 '사물놀이 마당'은 2020년 프로젝트 그룹으로 결성한 후 미국 LA 한인회 초청공연, 김덕수 사물놀이 45주년 기념공연,故 송순갑 선생 추모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어지는 무대는 남도민요와 국악관현악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의 노래로 들려준다. 집안의 화평을 기원하는 '성주풀이'를 시작으로 정초에 액을 막고 복을 부르는 '액맥이 타령', 대표적인 남도민요라 할 수 있는 '진도아리랑'으로 새해 삶의 액운을 몰아내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2부에서는 오늘날 국악 공연장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 중 하나인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박범호 곡)을 연주한다. 사물놀이의 다채로운 장단 변화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가락과 결합한 '신모듬'은 지난 1987년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초연한 이래 오늘날 국악관현악 최고의 명곡 중 하나로 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신모듬'은 풍장-기원-놀이 등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연주시간만 40분 이상이 소요되기에 요즘은 흔히 3악장만을 연주하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신모듬' 전 악장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청룡의 해에 보는 한국의 용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로 좋지 않은 소식이 연일 들렸던 2023년이 가고, 새로운 해가 왔다.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으로 ‘청룡’이다. 종교에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듯, 우리 삶에 육십간지를 기반으로 한 한해의 상징적 의미는 꽤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용은 상서로운 동물이면서도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로 읽히며, 푸른색은 사방위 중 동쪽을 의미하고 오행 중 나무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어떤 이에게는 좋은 해가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큰 기대를 못하게 되기도 한다. 물론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그저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마침 청룡의 해가 된 김에 우리 문화 속 용의 의미를 들여다보자.

삼국시대의 용

30여 년 전인 1993년 12월 12일, 부여읍 능산리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다가 한 웅덩이에서 범상치 않은 것이 발견되었다. 뚜껑과 몸체 두 덩이가 나뉘어있을 뿐, 거의 완전한 형태의 모습이 드러난 것은 백제의 금동대향로^[도판 1, 2]였다. 높이가 61.8cm 정도 되는 작지 않은 금동향로가 온전한 모습으로 남은 것도 놀라웠지만, 전무후무할 정도로 아름답고 섬세한 조각 또한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2023년 12월에는 발굴 3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부여박물관에서 특별전시실을 열고, 금동대향로에 새겨진 산과 동물, 악사와 신 등 다양한 조각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만들어진 방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청룡의 해인 2024년에 또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

백제금동대향로의 상단부는 칠정산 혹은 박산이라 부르는 신비로운 산속에 여러 동물과 신선들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여의주를 목에 바치고 있는 봉황이 서있다. 향로의 뚜껑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있어서, 향을 피울 때 연기가 사이사이로 빠져나오게 되어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게 한다. 이어 향을 피우는 몸통의 하단부는 불교의 상징인 연꽃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다. 이렇듯 연꽃이 받치고 있는 박산을 지탱



1 발견 당시의 백제금동대향로



2 백제금동대향로

하고 있다. 구불거리는 곡선으로 표현된 용은 입으로 향로의 몸통을 받치고 한 다리를 위로 뻗어 올리며, 나머지 세 다리와 꼬리로는 휘감듯이 원을 그리며 바닥을 지탱하고 있다. 향로를 받치고 있는 용을 이루는 아름다운 곡선에는 백제문화 특유의 섬세함이 잘 드러난다.

백제와 유사한 문화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고구려에서도 용은 자주 표현되었다. 그중에서도 현재 북한 지역에 있는 7세기 경에 만들어진 '강서대묘'^[도판 3]에는 묘주를 수호하는 네 마리의 수호신인 사신이 벽에 그려져 있다. 사신은 동서남북의 네 방위를 수호하는 신성한 동물로, 남쪽은 주작, 북쪽은 현무, 서쪽은 백호 그리고 동쪽은 청룡이 지킨다.^[도판 4] 그리고 묘주가 누워서 바라보게 되는



3 강서대묘_조선고적도보



4 청룡_조선고적도보

덧개석에는 중앙을 수호하는 황룡이 그려져 있다. 이전 시대의 고구려 고분벽화와 달리 강서대묘의 중앙에 위치하는 널방의 화강암 벽에는 밀칠이 없이 사신이 바로 그려져 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미지는 일제강점기에 모사한 사신도이지만, 힘이 느껴지는 곡선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청룡의 역동성이 보인다. 이렇듯 삼국시대의 훌륭한 유물 속에 등장하는 용은 불교의 세계를 받쳐주기도 하고, 죽은 이를 보호하기도 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인간을 공격하는 괴물이거나 타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세계를 품어주고 도와주는 신령한 존재였다.

등용문

용이 수호신으로 표현되기도 했다면, 과거급제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했던 조선에서는 용은 출세를 의미하기도 했다. 현대에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용은 성공을 일컫기도 했다. 이는 잉어가 노력하여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황하 상류의 ‘용문’을 뛰어올라 용으로 변했다는 등용문(登龍門)에 관한 중국고사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래서 사대부 집안에서 잉어가 용문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담은 <어변성룡도(魚變成龍圖)>^[도판 5]가 많이 걸리곤 했다. 과거급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부터, 출사를 한 후에도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들까지, 비록 지금은 잉어지만 언젠가는 용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잉어가 헤엄치거나 물에서 튀어 오르는 듯한 모습이 고려청자나 분청사기, 조선 백자 등의 공예품에서도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조선 전기에는 수목화로도 많이 그려졌고, 후기로 하면서 화려한 채색의 그림으로 제작되었다. 이렇듯 용이 되고자 하는 잉어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많이 그려지고, 용을 그린 그림도 적지 않았지만,

조선에서 용을 수놓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이는 임금과 왕세자 뿐이었다. 임금이 입는 정복을 의미하는 곤룡포(袞龍袍)라는 말처럼, 옷의 가운데에 부착되는 보(補)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용이 수놓아졌다. ‘보’는 신하의 옷에 붙이는 흉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왕을 상징하는 용이 표현된다. 용의 모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용이 왕의 상징인 것은 고려부터 조선까지 이어져 왔다.

대부분의 어진, 즉 왕의 초상이 전쟁으로 소실되었지만,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는 고종 대에 모사한 것이 남아 있다.^[도판 4] 원본은 소실되어 알 수 없지만,



5 어변성룡도





6 조선태조어진

본래의 그림을 거의 유사하게 다시 그린 것으로 추정한다. 익선관과 얼굴은 음영을 살려 입체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의자와 곤룡포 등은 윤곽을 살리고 평면적으로 채색되어 있는 전형적인 조선 초 상화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태조가 착용하고 있는 곤룡포는 붉은색 대신 푸른색이지만, 양어깨와 가슴의 보에는 황금색의 용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용은 다섯 개의 발톱을 가지고 있는데 왕세자는 네 개, 왕세손은 세 개의 발가락을 가진 용으로 표현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조선에서 용은 왕을 상징했다.

지금 우리에게 용이란?

서양의 문화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소위 MZ 세대에게 용은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이거나 동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악한 존재로 인식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용은 신적인 존재였으며 설화 속에서는 복을 내리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현대의 한국에서 사는 우리에게 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왕이면 올해에는 수호신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혼란하고 불안한 사건과 사고는 막아주고 공기를 맑게하고 깊게 뿌리를 내린 단단한 나무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신성한 존재인 용을 우리 모두 가슴에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보스톤 심포니홀

북미 최고의 콘서트홀

보스톤 심포니홀

BOSTON SYMPHONY HALL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보스톤 심포니홀(Boston Symphony Hall)은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시 매사추세츠 애비뉴 301번지에 위치한 콘서트홀로 1900년에 문을 열었다. 건축가 맥킴, 미드&화이트(McKim, Mead and White)가 공동으로 설계한 이 콘서트홀은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BSO(Boston Symphony Orchestra)를 위해 지어졌으며 2,625명의 관객이 수용 가능하다. 1999년에 미국 국립 역사 랜드마크로 지정된 바 있는 보스톤의 랜드마크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콘서트허바우, 오스트리아 빈의 뮤직페라인과 함께 음향학적으로 세계 3대 콘서트홀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공연장으로 간주되고 있다.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북쪽으로 한 블록,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남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보스톤 팝스 오케스트라의 본거지이자 헨델과 하이든 소사이어티의 연주장소로 쓰이고 있다.

1899년 올드 보스톤 뮤직홀이 도로 건설과 지하철 건설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자 새로운 심포니홀의 건립이 논의되었고, 같은 해 6월 착공하여 17개월 후인 1900년 10월 15일에 개관했다. 전체 공사비는 US \$770,000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맥킴, 미드&화이트 3명의 공동 설계자는 하버드 대학의 젊은 물리학



조교수인 월레스 클레멘트 새빈(Wallace Clement Sabine)을 음향 컨설턴트로 고용함으로써 보스톤 심포니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최초의 콘서트홀 중 하나가 되었다. 개관 첫 공연부터 뛰어난 음향으로 호평을 받은 이 홀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클래식 콘서트 장소로 인용되곤 한다.

보스톤 심포니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된 독일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알테스 게반트하우스(Gewandhaus: 1984년 재건축)를 벤치마킹 하여 건립되었는데, 앞서 언급된 암스테르담의 콘서트허바우(Concertgebouw)나 빈의 무직페라인(Musikverein)처럼 홀 내부는 직사각형의 길고 좁은 평면을 가지고 있다. 홀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18.6m(61피트), 22.9m(75피트), 하단 뒷벽에서 무대 전면까지 길이 38.1m(125피트)이다. 무대 벽은 소리의 집중을 돕기 위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나무 바닥을 제외하고 홀은 소박한 장식과 함께 강철과 석고로 만들어졌다. 측면 발코니는 소리가 걸리거나 머플링(음량의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얇으며, 세 면을 따라 있는 격자형 천장과 조각상으로 가득 찬 벽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좌석

에 탁월한 음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Herbert von Karajan)은 무직페라인(Musikverein)과 비교하면서 조각으로 가득 찬 벽면이 유발하는 잔향 시간 때문에 보스톤 심포니홀이 북미의 어떤 공연장보다도 뛰어난 음향을 가진 연주장이라 호평한 바 있다.

2006년에는 US \$250,000의 비용으로 마모가 진행된 콘서트 무대 바닥을 교체하게 되었다. 하지만 홀의 소리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원래 바닥과 동일한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단면이 요철방식으로 된 통-인-그루브(tongue-in-groove) 형태의 3/4인치 단단한 단풍나무 보드에 압축된 양모 밀갈개 및 손으로 두드려서 강화된 강철 절단 못이 포함되었다. 건립년인 1899년에 만들어진 수직 결 전나무 바닥은 모양이 아주 좋았고 현재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새 바닥에 사용된 못은 원본과 동일한 크기와 구조를 사용하여 손으로 잘라낸 것이었고, 원래 단풍나무 상판 보드의 뒷면 채널링도 그대로 복원작업을 하였다. 초기 완벽했던 음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리노베이션의 방법과 자재까지도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갔다.

무대 위에는 베토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역대 음악감독들이 베토벤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스턴 심포니홀에 새겨진 유일한 음악가의 이름이 되었다. 보스턴은 여타의 도시와 다르게 팝스 오케스트라 역시 최고 수준으로 운영되는데, 장르에 따라 클래식 심포니 시즌에는 2,625명, 팝스 시즌에는 2,371명 등 각각 다르게 관객을 수용하고 있다.

조각상(Statue)

보스턴 심포니홀에는 16개의 유명한 그리스 및 로마 조각상이 홀 벽의 윗층에 배치되어 있다. 이 중 10명은 신화 속 인물이고, 6명은 역사적 인물이다. 모두 카프로니(P. Caproni)와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무대를 바라보는 출연진은 다음과 같다.

오른쪽, 무대에서 시작하면 소년 바쿠스(Bacchus, 헬레니즘 시대 원본의 로마 사본, 나폴리)를 안고 있는 아폴로 시타로에두스(Apollo Citharoedus, 로마 예술가, 1774년 티볼리 근처 카시우스 빌라에서 발굴됨, 바티칸), 젊은 여인(1711년 드레스덴 헤르쿨라네움에서 발굴), 춤추는 목신(로마), 데모스테네스(로마), 앉아있는 아나크레온(Anacreon), 에우리피데스의 머리를 가진 비극 시인의 동상(바티칸), 베르사유의 다이애나(파리)이며, 무대에서 시작하는 왼쪽으로는 쉬고 있는 사티로스(Praxiteles, 로마), 부상당한 아마존(베를린 폴리클레이토스), 에르메스 로기오스(파리), 렘니안 아테나(Lemnian Athena, 드레스덴, 볼로냐에 소장 있음), 라테란 소포클레스(바티칸), 스탠딩 아나크레온(코펜하겐), 아에쉬네스(Aeschines, 나폴리), 아폴로 벨베데레(로마) 등이다.

오르간

1900년 보스턴 심포니홀 건립 당시 조지 허칭스(George S. Hutchings)가 만든 첫번째 오르간은 1949년 메사추세츠 보스턴에 위치한 스킨너(A.Skinner) 컴퍼니에서 제작되었다. 작품번호(Opus) 1134인 심포니홀 오르간은 도널드

해리슨(Donald Harrison)이 디자인하였다. 총 4,800개의 파이프를 가지고 있으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음악가이자 신학자인 알베르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의 사인이 있다. 오르간은 전자식으로 작동되는데 깊이 3.7m(12피트), 높이 12m(40피트)의 방에 설치된 62열 4,800개의 파이프는 당시 선호되던 유행에서 벗어나 더 가볍고 깨끗한 톤으로 연주된다.

기존 허칭스의 파이프 중 60% 이상을 재사용 및 개조했으며 포지티브 부문에 600개의 새 파이프를 추가했다. 2003년에 오르간은 폴리 베이커 유한회사(Foley-Baker Inc.)에 의해 점검을 거쳐 많은 부분 재사용 되었지만 주요 음역대의 파이프는 추가되었다. 더 나은 사운드를 위해, 그리고 오르간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할 때 오르간 연주자와 지휘자 사이의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원래 4개 수동 콘솔은 3개 수동 콘솔로 교체되었다. 보스턴 심포니홀의 황금빛 오르간은 여전히 다른 콘서트홀과 구별되는 디자인으로 무대 중앙에 웅장하게 자리매김하여 있다.



1 보스턴 심포니 음악감독 안드리스 넬슨스
2 지휘자 안드리스 넬슨스와 협연자 바티아슈빌리

국내 첫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개관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한국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장애예술은 논외였다. 장애인에게 예술은 '사치'라는 사회적 인식 탓이다. 장애인이 예술 창작에 나서지는 것은 물론이고 향유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당장 이동 문제 때문에 공연장이나 전시장, 영화관 등에 가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연히 장애예술에 대한 정책도 오랫동안 마련되지 못했다.

여기서 '장애예술(disability arts)' 용어에 대한 설명이 우선 필요할 것 같다. '장애예술'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즉 장애인의 당사자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비해 '장애예술'은 장애 예술인만으로 한정 짓는 대신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까지 포함하는 포용적인 개념으로, 예술적 수월성을 보여주는 데 주목한다. 이 때문에 일부 장애 예술인들은 자신의 예술작업을 장애예술로 구분 짓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에 대한 기존 인식을 변화시키고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는 장애예술이 점점 일반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정책은 오랫동안 복지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보건복지부 관할이었다. 그러다가 장애인체육 업무가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이관되면서 장애인체육은 단순 복지 차원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체육의 경우 장애인 스스로 신체 활동을 통해 신체·정신적 재활을 도모하면서 자기 계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생활체육과 함께 패럴림픽 등 엘리트 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국제행사가 문체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예술활동 지원은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남았다. 장애 예술인을 전문 예술인으로 보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 장애예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았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애예술이 장애인의 단순한 취미나 치료가 아니라 그냥 '예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한국에서는 2007년 문체부가 장애인문화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세운 데 이어 200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위한 '함께누리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장애예술은 비로소 예술 분야 안에 포함되게 됐다.

다만 문체부는 2009년 내실 있는 장애인문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며 기존의 체육국 장애인체육과를 장애인문화체육과로 확대 개편했는데, 여전히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행히 문체부는 2013년 체육국 산하의 장애인체육과에서 장애인문화

사냥꾼의 먹이가 된 그림자



예술 업무를 분리해 예술국 산하 예술정책과에 배정했다. 하지만 체육국에 장애인체육과가 있듯이 예술국에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설치되어야 내실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장애예술계 현장의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2015년 문체부 산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설립되면서 장애예술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연계의 경우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 프리가 강화됐다. '장벽'의 Barrier와 '자유'의 Free가 합쳐진 배리어 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사회 활동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다. 원래 건축 분야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다. 공연계의 배리어 프리는 주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및 국문 자막,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상 제공에 집중됐다. 그리고 점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으로 창작하거나 출연하는 공연도 잇따라 만들어지게 됐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 들어 젊은 연극인들이 자본으로부터의 소외, 성별이나 성적 지향의 차이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를 동시대적 이슈로 주목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오랜 소수자인 장애인에게도 시선이 옮겨가게 됐다. 2020년 세계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장애 예술인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장애 예술인의 제약 없는 예술활동 기회 보장'을 약속하고 나섰다. 장문원이 장애 예술인 표준공연장 및 표준전시장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 것은 이런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구세군빌딩 아트홀을 개보수한 모두예술극장은 국내 첫 장애 예술인 표준공연장이다. 모두예술극장이라는 이름은 누구나(장애·비장애) 향유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0월 개관한 모두예술극장은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으로 무대와 객석 크기·위치·구조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1층에 209석, 2층 최대 50석(휠체어 좌석



수는 가변적)까지 가능하다. 일반 공연장이 주로 무대 뒤쪽에 두는 휠체어석을 1층 맨 앞줄에 배치했다. 2층은 고정된 의자가 아예 없는 평평한 바닥으로 설계했다. 연습실 3개, 스튜디오 1개, 분장실 4곳도 마련했다. 분장실 내부 샤워실은 휠체어를 탄 채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모두예술극장은 전체 공간이 무단차여서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공연자와 기술 스태프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없다. 또 건물 내부 곳곳에 부착된 점자 안내판과 300m 길이의 핸드레일(안전 손잡이)은 시각 장애인을 돕는다. 방음이 필요한 연습실, 공연장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공간의 문은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다.

모두예술극장은 2024년 2월까지 예정된 개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2년 '연극계의 노벨상'인 국제 입센상을 받은 호주 장애인 중심 극단인 백투백 씨어터의 <사냥꾼의 먹이가 된 그림자>, <데모크라틱 세트>, 국내 극단 북새통의 <뚝, 뚝, 뚝> 등 국내외 우수 작품 및 창작·기획 작품을 무료로 선보인다. 특히 개관 직후 동시대 예술과 국내 장애예술의 접점을 찾는 담론의 장인 '장애예술 매니페스토'를 마련해 장애예술 창작을 촉진했다. 모두예술극장은 이후 공연장과 연습실, 스튜디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 2회 정기 및 수시 대관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단체)에게 우선 대관과 사용자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하도록 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은 '환경이 바뀌면 장애는 없다'고 말한다. 장애 예술인들의 꿈과 염원에서 나온 모두예술극장이 장애예술의 메카로서 국내 공연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길 기대한다.

<사진 제공: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INVITATION TO THE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E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S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 2774- 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E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C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H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	----------

S

SM아트홀	1600-1602
-------	-----------

ART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 거인



지휘 백승현



피아노 정규빈

◆ **지난해 12월, 제606회 정기연주회를 마지막으로 최수열 예술감독과의 6년간 동행을 마무리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월 19일 제60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 거인’으로 2024년 갑진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거대한 관현악 편성을 사용하면서도 각 악기의 풍부한 낭만적 서정성을 잃지 않는 작곡가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을 지휘자 백승현의 깊이 있는 해석과 정확한 지휘로 들려준다. 이번 작품은 대규모 편성의 오케스트라의 사용과 혁신적인 화성어법을 이용하는 말러 교향곡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으로, 초연 당시 대중과 비평가들로부터 모두 외면당했으나 오늘날에는 클래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휘자 백승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과 지휘전공으로 학사를,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악대학 대학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와 합창 지휘 석사를 취득했다. 독일 문화부 산하 독일 음악협회의 ‘지휘자포럼’ 회원을 역임한 그는 2021년 7회 에른스트 폰 슈흐 상을 공동수상했으며 바덴바덴 필하모니, 로이틀링엔 필하모니, 앙상블 무직파브릭, 데트몰트시립극장 오케스트라, 바트라이엔할 필하모니, 웨스트 보헤미안 심포니 등을 지휘하며 독일에서의

활동을 이어왔다. 국내에서는 포항시립교향악단, 필하모니 코리아, 서울모던앙상블, 서울비르투오지, 앙상블 위로 등을 객원지휘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이데일리 문화대상 대상작인 와이즈발레단의 ‘VITA’ 국내 순회공연을 지휘한 바 있다. 백승현은 지난해 1월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 지휘자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말러의 교향곡 제1번 연주에 앞서 1부에서는 최근 2023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정규빈이 친근한 선율과 단순 명쾌한 구성, 감명 깊은 아다지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을 들려준다. 협연자 정규빈은 이화경향 콩쿠르, 예원 콩쿠르, 음악춘추 콩쿠르, 예술의전당 캠프&콩쿠르, 아마하음악장학생 선발대회 등에서 1위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냈으며 예틀링엔 국제 콩쿠르, 도쿄 국제 콩쿠르, 비엔나 베토벤 국제 콩쿠르 등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도 입상한 바 있다. 슬로박 국립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요미우리 니폰 심포니 오케스트라,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크누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며 활발한 음악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정규빈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 뮌헨국립음대 석사과정에 있다.

일 시 1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평생을 함께할 클래식 친구,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까?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올 한해 꼬마 관객들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시리즈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한다. ‘토요일의 ㅋㅋㅋ’라는 유쾌한 부제와 함께 열리는 이번 무대는 어린이들이 클래식 공연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 어린이들과 클래식의 거리를 좁혀 둘도 없는 친구로 만들어준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로 공연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스크린을 활용한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앙상블 연주는 물론 회차별로 연기, 노래, 발레 등이 어우러져 어린이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예술적인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는 올 한해 세 차례 펼쳐진다. 1월 27일 첫 무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OST 연주로 클래식 공연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3월 23일과 5월 18일에는 어린이 명작 동화를 클래식으로 만나는 음악극 ‘오즈의 마법사’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낸다. 특히 클래식 연주자뿐 아니라 배우, 성악가, 발레리나까지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여 꼬마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명쾌하고 재미있는 해설과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소연이 해설을 맡아 어린이들의 예술적 감성을 일깨워준다. 클래식 앙상블 ‘엘 콰르텟’의 리더로 신진음악회의 등용문인 조선일보 신인음악회를 통해 데뷔한 박소연은 ‘KBS 클래식 오딧세이’, ‘KBS 문화 책갈피’, ‘KBS 찾아가는 음악회’, ‘예당 아트 티비’ 등 국내 주요 클래식 방송에 출연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클래식 교육과 감상을 위한 다양한 테마의 ‘키즈 클래식’을 기획, 수년간 진행하며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오고 있다. 연주를 맡은 ‘엘 콰르텟(L quartet)’은 풍부한 감정 표현과 섬세한 연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현악사중주단으로 무용, 연극, 미술 등 다채로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실내악 음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바이올린-해설 박소연



엘 콰르텟



일 시 1월 27일(토), 3월 23일(토), 5월 18일(토)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1월 27일(토)
오프닝 공연 키즈 시네마 with 애니메이션 OST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오프닝 공연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음악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특히 감성을 자극하는 ‘지브리’ 애니메이션과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을 앙상블 연주와 노래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 지브리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벼랑 위의 포뇨, 마녀 배달부 키키 등
-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라이온 킹, 코코, 알라딘, 겨울 왕국 등



3월 23일(토)
클래식으로 만나는 명작 동화 오즈의 마법사

첫 출판 후 무려 100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오즈의 마법사’를 클래식 음악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연기와 성악가의 노래가 재미있는 스토리텔링과 함께 펼쳐진다.

프로그램

- 해럴드 알렌/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 ‘Somewhere Over the Rainbow’
- 라벨/ ‘어미 거위 모음곡’ 중 ‘마법의 정원’
- 네케/ ‘크시코스의 우편 마차’ 등



5월 18일(토)
클래식으로 만나는 명작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흥미를 이끄는 판타지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발레가 함께하는 음악극으로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 들리브/ 발레 ‘코펠리아’ 중 ‘시간의 왈츠’
- 르로이 앤더슨/ ‘피들 패들’
- 차이콥스키/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왈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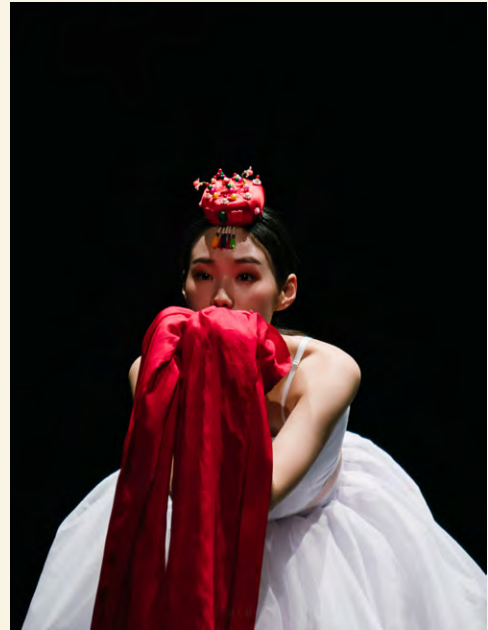
결정 불가능성을 담은 춤

부산시립무용단 ‘디딤&STEP’
김미란의 <위로 WE-路>

◆ 최찬열 춤 비평가

2023년 부산시립무용단 안무가 육성프로젝트 ‘디딤&STEP’ 무대는 단원 김미란이 도맡아 꾸렸다. 큰 무용 경연대회에서 의미 있는 상을 받는 등, 근래 그녀가 펼친 활약상이 남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옴니버스 형식의 이 공연 <위로 WE-路>(12월 8~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는 총 5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그녀의 지난 주요작들이 이날 무대에 다시 오르는 셈이다. 이 중에서 4개의 작품, 즉 <꽃을 꺾어 본 적 있습니까?>, <선물>, <빙어리 춘앵>, <넋전>이 2부에서 재연되었는데, 각각의 작품에 출연한 주인공들은 김미란을 대신해 그녀의 과거 작품 속 주요 장면들을 열연해 보이고, 마지막에는 김미란과 함께 모두 무대에 등장해 각자가 들고 있던 오브제와 수의 등을 독 안에 담았다. 이른바 김미란의 과거 전체가 한곳에 모이는 흥미로운 엔딩 씬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공연에서는 1부 무대에 오른 <중중독: 독 안의 여자>가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작품이 올해 창무국제공연예술제의 ‘창무프라이즈’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뒤쪽에 길고 너른 흰 천들이 걸려 있는 무대 중앙에 제법 큰 독이 얹어져 있고, 그 위에 남성 춤꾼 한 명(최의욱)이 서 있다. 탈을 쓰고 얼굴을 가린 그가 독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무대 왼쪽 뒤에는 악사(박지영)가 앉아 뭔가를 굽는 듯한 둔탁한 소리를 낸다. 무대 바닥으로 내려온 춤꾼이 독에 한 손을 걸치고 비스듬히 앉았다가 일어난 후, 그 뒤에서 등을 보인 채 서서 탈을 벗는다. 삼면이 얼굴 형상을 한 탈이다. 그



런데 그는 또 다른 탈을 쓰고 있다. 인간이라면 모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법한 다중인격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듯하다. 혹은 이랬다 저랬다 하며 수시로 얼굴상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여성상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는 그 탈을 무대 오른쪽 앞에 건다. 그리고 독으로 다가가 얹어진 독을 바로 세워 돌리면, 그 안에 검은 의상을 입은 여성(김미란)이 웅크린 채 누워있다. 폐쇄된 공간, 즉 독 안에 갇혀 자포자기한 모양새이다. 그러다 남성 춤꾼이 독을 빙빙 돌리면 여인은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한 손을 저 멀리 쪽 내밀어 보다가, 다시 독 안에 널브러진다. 그러면 남성 춤꾼이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긋이 지켜본다. 이를테면 독 안과 그 주변은 남성이 지배하는 세계이고, 그곳에서 무력하게 거주하는 그녀는 바깥세상을 동경하는 듯하지만,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때문인지 다음 장면에서는 악사가 그런 그녀를 다그치는 역할을 맡는다. 그렇지만 여성 악사의 독려는 요란하기보다 흔들림 없이 침착하고

평온하다. 독 안에서 일어난 그녀가 독 바깥에 앉은 남성의 어깨를 한 발로 지그시 밟다가 독 가장자리에 올라서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다시 독 안으로 잠겨 들면, 남성은 그 독을 슬금슬금 돌린다. 그녀를 어르고 달래는 것이리라. 그런 그녀의 모습이 비록 즐겁거나 안락해 보이지는 않지만 평화롭게 보인다. 그러다 그녀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방황하듯이 독 안에서 빙빙 돌기 시작하면, 악사가 무대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아가며 피리를 불기 시작한다. 남성 중심의 강고한 세상이 깨지거나 갈라 터지는 것과 같은 파열음처럼 들린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한 자유의지를 부추기고 일깨우는 것 같은 그 소리에 고무된 듯, 그녀는 굴러서 독 밖으로 나와 두 팔을 휘저으며 엉금엉금 기어서 피리를 부는 여인과 마주한다. 그리고 독에 걸터앉은 남성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말하자면 독과 그 주변 세상은 타성에 젖은 갑갑하고 답답한 삶의 장소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거기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보장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그녀는 그런 편안함을 쉬이 떨쳐내지 못한 채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다. 곧 독은 삶의 독(毒)인 셈이다. 그렇다면 공연 제목 <중중독: 독 안

의 여자>에서 ‘독’은 장독이면서 독(毒)이라는 말이다. 곧 전 자일 때 ‘중독’은 독의 한가운데, 여성이 거주하는 장소를 뜻하고, 후자일 때 그것은 타성에 젖은 여성적 삶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공연에서 타성은 남성 중심의 세계를 공고히 하는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그와 반대로 피리 소리는 이 세계를 허무는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그리고 김미란은 두 힘 사이에서, 곧 피리 부는 여성 악사와 남성 사이에서 괴로운 듯 몸부림치다가, 이내 남성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고, 악사는 제 갈 길로 뚜벅뚜벅 가버린다. 요컨대 나아가려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부족하여 활동적이지 못한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중중독: 독 안의 여자>은 안일함에 중독된 여성적 삶을 반성하는 공연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구심력과 원심력의 맞버팀이 극대화된다. 즉 무대 가장자리로 이동하며 부는 악사의 피리 소리가 여인을 바깥세상으로 강하게 견인하고자 하지만, 여인은 중심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독 주변에서 남성과 듀엣 춤을 이어간다. 독 주위를 돌다가, 그 안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또 독 가장자리에 올라서서 남성에게 의지한 채 빙빙 돌다가, 남성의 어깨에 올라타는 등 그와의 춤을 지속한



다.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악사는 무대 왼쪽 뒤에 우뚝 서서 여인을 부추기듯 피리를 불다가, 재차 무대 가장자리를 돌아서 뒤쪽에 선 채 더 힘차게 피리를 불어댄다. 두 힘이 맞버티는 형국이 한동안 펼쳐지는 것이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즉 두 세계 사이에서 그녀는 춤추다 쓰러지고, 두 팔을 거칠게 흔드는 등 갈등하고 방황한다. 복잡하고 알쏭달쏭한 그녀의 내면 심리가 미묘하게 나타나 보인다. 인간 삶의 고유성은 수동적인 영향 받음에서 전적으로 벗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 기실 이는 결단코 불가능할 것이다. 여러 얼굴상을 가진 탈이 상징하듯, 요동치는 여성의 내면 심리를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오브제와 음악, 무대장치로 구축한 명징한 미장센에 담아 차분하면서도 담담하게 전하는 대목이다.

방황과 갈등의 몸부림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무기력하게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기대는 그녀를 남성 춤꾼이 받아안고 다독이듯 어루만지다가, 홀로 서게끔 세워보지만, 그녀는 자기 힘으로 서지 못하고 허우적거린다. 그러다 악사가 다시 무대 가장자리를 돌기 시작하면, 힘들게 그를 따라가 보기도 하지만, 여의찮은 듯 다시 허우적거린다. 그러다 겨우 일어나 터벅터벅 악사 뒤를 따르면, 남성 춤꾼이 끼어들어 갈 길을 막아 세운다. 그러면 악사는 제자리에 서서 또다시 피리를 강하게 불어대며 그녀의 자유의지를 강하게 추동하지만, 그 소

리에 대응하듯, 남성 춤꾼은 그녀를 무동 태우고, 둘은 넘실 넘실 흥겹게 춤을 춘다. 남성의 어깨에 올라탄 그녀는 그런 놀이를 은근히 즐기는 듯하다. 그녀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는 데 익숙해진 몸을 가진 존재자인 것이다. 그러다 그녀는 어떤 힘에 끌려 들어가듯 다시 독 안으로 흘러당 들어가고, 남성 춤꾼은 기쁜 듯 그 주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렇지만 이는 완전한 회귀가 아니라 어중간한 지대에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하기가 완전하게 자유스러운 공간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기에 적당하게 혼탁한 곳에서 제 식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도 새로운 삶의 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녀가 또다시 독 안에서 일어나 두 팔을 격정적으로 휘저으며 격렬하게 몸부림치면서 공연은 끝이 난다.

<중중독: 독 안의 여자>에서 무대는 두 부분, 곧 두 세상으로 구획되어 있다. 독과 그 주변 공간은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것을 벗어난 지역, 곧 악사가 서 있거나 돌면서 이동하는 무대 가장자리는 자유의 공간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미란은 그 두 공간 사이에서 시종일관 방황하다가 급기야는 다시 독 안의 세상으로 회귀하지만, 이내 다시 갈등하며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춤을 춘다. 말하자면 김미란이 추는 독 안에서의 마지막 몸부림은 이항 대립하는 두 세계 중에서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 곧 ‘중간 세계’에 거주하려는 의지가 발현되는 춤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춤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결정 불가능성’을 담은 춤일 것이다. 요컨대 김미란은 바람직한 여성 삶의 길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둘 중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둘 다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중도(中道)’에서 찾고자 함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공연 <중중독: 독 안의 여자>에서 실행자로서 공연에 직접 참여하며 김미란을 다른 삶으로 인도하고 견인하는 매개자 혹은 안내자 역할을 하는 여성 악사의 역할이 매우 인상적이다. 단정하게 의상을 차려입고 시종일관 들뜨지 않고 잔잔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모든 어머니를 대리하는 인물로 보이는데, 공연 내내 표출된 주저함과 망설임의 정서가 지극히 수동적인 무기력이 아니라, 포용과 관용의 여성적 넉넉함으로 보이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2024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별이 빛나는 부산

일 시 | 1월 5일(금)~20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중극장·챔버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실내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5일(금) 오후 7:30 중극장
가막연주회 스테판 피재키브
'Mozart & Mendelssohn
Concertos with Busan
Chamber Festival Orchestra'

현재 클래식 음악계가 가장 주목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재키브의 무대로 여는 개막연주회.

특히 이번 무대는 그가 부산에서 갖는 첫 단독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체임버페스티벌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과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 입장료/R석 4만원, S석 2만원



9일(화) 오후 7:30 중극장
첼리스트 요나 김과 발레리나 줄리아 로 'Songs
That Make Us Dance'

'2023 챔버페스티벌'에서 그만의 뛰어난 연주실력과 유쾌함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당시 최고의 스타로 주목받았던 첼

리스트 요나 김의 무대.

특히 요나 김의 첼로 연주와 어우러지는 줄리아 로(미국 샌프란시스코 발레단 수석무용수)의 발레 무대에 이어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윤수와의 연주도 함께 들려준다.

- 입장료/R석 4만원, S석 2만원

12일(금) 오후 7:30 중극장
Masters and Masterpieces I

월드클래스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실내악의 향연. 개막무대의 주인공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재키브를 비롯해 클래식계의 아이돌 대니 구, 흥공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비올리스트 앤드류 링, 넘치는 에너지로 '다음 세대의 요요마'라고 극찬받는 요나 김,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국제콩쿠르' 30년 역사상 클라리넷으로 최초 우승한 김윤아가 모차르트, 드보르작, 브람스의 실내악곡으로 실내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 입장료/R석 4만원, S석 2만원

13일(토) 오후 5:00 챔버홀
학교 실내악 축제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각 학교별로 선발된 대학 실내악팀의 무대로, 젊은 연주자다운 활기 넘치고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 입장료/전석 1만원



16일(화) 오후 7:30 중극장
대니 구의 '별이 빛나는
부산' 토크 콘서트

천재적인 음악성과 모험적인 프로젝트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의 토크콘서트.

MBC TV예술무대 진행자로도 활약하고 있는 대니 구의 재치있는 입담과 연주로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이번 무대는 부산의 음악팬들에게 새해 선물와도 같은 소중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 입장료/R석 4만원, S석 2만원

19일(금) 오후 7:30 챔버홀

All about Tango: 이승민×친친탱고×콰르텟 BCMS

반도네온 콰르텟 앙상블 친친탱고와 부산의 실내악문화를 주도해온 콰르텟 BCMS, 그리고 팬텀싱어4 출신의 바리톤 이승민이 함께하는 색다른 탱고무대.

친친탱고의 자작곡들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친친탱고와 콰르텟 BCMS가 '탱고의 제왕' 피아졸라의 열정적인 음악을 새로운 편곡으로 재해석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 입장료/전석 2만원



20일(토) 오후 5:00 챔버홀
폐막연주회 Masters and
Masterpieces II
'앙상블오푸스'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24년 무대를 마무리하는 폐막무대.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조합으로 주목받아온 앙상블오푸스는 이번 무대에서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서울대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이화여대 교수), 비올리스트 김상진(연세대 교수), 첼리스트 김민지(서울대 교수),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성신여대 교수)가 피아노 오중주의 명곡인 쇼스타코비치와 드보르작의 피아노 오중주로 최고의 하모니로 선사한다.

앙상블오푸스는 이번 무대에서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서울대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이화여대 교수), 비올리스트 김상진(연세대 교수), 첼리스트 김민지(서울대 교수),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성신여대 교수)가 피아노 오중주의 명곡인 쇼스타코비치와 드보르작의 피아노 오중주로 최고의 하모니로 선사한다.

- 입장료/전석 2만원

듀오 제겐의 세 번째 이야기
Rhapsody in Blue

일 시 | 1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피아니스트 정보근, 공은지가 결성한 듀오 제겐의 세 번째 무대. 듀오 제겐은 지난 2019년 결성된 후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며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정보근은 현재는 전문연주자로 활동하는 한편, 부산예중·고에 출강하고 있다. 공은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경성대학교, 울산대학교, 선화예중·고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지 거쉬인의 '랩소디 인 블루'를 비롯해 볼컴, 코플랜드 등 미국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2024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재)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희망과 위로의 신년인사 '2024 신년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일본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지휘자 세이교 김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소프라노 박한나, 바리톤 한규원이 새로운 시작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힘차고 희망적인 프로그램으로 갑진년 새해를 활짝 열어준다.

특히 전 SBS 아나운서이자 클래식 애호가인 박한나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부산시민과 만난다.

오민겸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월 13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오의겸 010-2707-0981



‘음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감정이 풍부히 담긴 연주’로 촉망받는 피아니스트 오민겸 독주회.

부산예술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현재 더욱더 아름답고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가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오민겸은 동의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부산광역시 예술영재교육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며 부산광역시 교육감상을 수상하는 등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았다.

오의겸은 부산예술중학교에 재학하던 당시 3년간 전공 우수자로 선정되어 매년 우수 연주회 무대에 올랐으며, 삼익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이-음 콘서트’, 2023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 음악제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해왔다.

부산아너스 플루트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월 14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아너스 플루트오케스트라 010-2831-2836



플루트 선율을 사랑하는 전공자 및 비전공자들이 모여 결성한 부산아너스 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는 지난 2016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한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부산관악콩쿠르에서 2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음악총감독, 지휘/정옥경
- 음악부감독/조진학
- 수석트레이너/박옥선
- 협연/김운화, 차화순, 권미형, 이금주(4중주), 이경아
- 피아노/최보예
- 수어통역사/유아람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월 18일 목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010-9944-8825



성악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하모니카 연주자 박기국이 총감독 및 지휘자로 있는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정기연주회.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는 지난 15년간 부산을 기반으로, 하모니카 악기의 다양성과 전문적인 공연 프

로그램으로 하모니카만의 독특한 매력을 전하고 있으며, 매 공연마다 70명이 넘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하모니카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새미 클래식에서부터 추억의 대중음악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 총감독/박기국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 거인

일 시 | 1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12월, 제606회 정기연주회를 마지막으로 최수열 예술감독과의 6년간 동행을 마무리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24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마련한 제60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 거인’.

이번 무대에서는 2023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정규빈이 들려주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협연에 이어 거대한 관현악 편성을 사용하면서도 각 악기의 풍부한 낭만적 서정성을 잃지 않는 작곡가 말리의 교향곡 제1번 ‘거인’을 부지휘자 백승현의 깊이 있는 해석과 정확한 지휘로 들려준다.

WAVE IN BRASS 제2회 정기연주회 PASSION

일 시 | 1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웨이브인브라스 010-4628-5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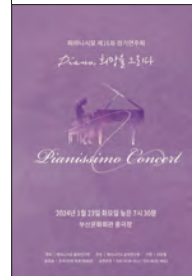
부산, 경남 출신의 열정 가득한 젊은 관악연주자들이 새로운 브라스(금관) 파도를 만들어내자는 슬로건 아래 모인 ‘웨이브 인 브라스’의 무대.

팀명인 ‘웨이브 인 브라스’는 바다를 상징하는 ‘웨이브(Wave)’와 브라스 악기를 연상시키는 ‘브라스(Brass)’의 합성어로, 바다처럼 넓은 세상을 향해 한발자국씩 나아가며 우리만의 음악을 관객들에게 들려주고자 결성된 단체이다.

‘Passion’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초연되는 새로운 곡에서부터 일상 속에서 한번쯤은 들어보직한 다양한 장르의 곡을 젊은 브라스밴드만의 열정이 담긴 화려한 사운드와 퍼포먼스로 들려준다.

피아니시모 제16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희망을 그린다

일 시 | 1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피아니시모 음악연구회 010-9238-2411



피아니스트 이은형을 대표로, 부산에서 활동중인 피아노 교사들로 구성된 피아니시모 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시모 음악연구회는 지난 2010년 창단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가져오며 피아노 음악의 아름다

움을 알려오고 있다.

16회를 맞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2024년 새해를 맞는 희망과 용기를 피아노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한다.

- 기획/이은형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24 신년음악회 청룡이 나르샤

일 시 | 1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홈페이지 사전 예매, 1인 4매)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4년 갑진년 새해,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통음악의 선율로 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24 신년음악회. 이동훈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대북 연주자 임원식, 사물놀이 마당,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앞날의 행복을 기원하는 비나리와 액맥이 타령으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신년 덕담을 전한다.

프로그램

이동훈/대북과 풍물을 위한 협주곡 '비나리'
 남도민요와 국악관현악/성주풀이, 액맥이타령, 진도아리랑
 박범훈/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

넥센월석문화재단과 함께하는 Musica BUSAN

일 시 | 1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부산 출신, 혹은 부산에 거주하는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실력있는 연주자의 무대로 꾸며지는 넥센월석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무지가 부산'.

이번 무대에서는 KNN방송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뉴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수석지휘자, 한국오페라단 음악감독, 놀라운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서희태가 지휘하는 KNN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피아니스트 이윤수, 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김지호가 관객과 만난다. 이번 무대에서는 차이콥스키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서곡을 시작으로 이윤수가 들려주는 거쉬인 '랩소디 인 블루'에 이어 양송미, 김지호가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2024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010-4183-2293



부산 민간합창의 특별한 전통으로 자리잡은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정기연주회.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상설합창단이 아닌, 매년 초에 합창을 사랑하는 남성 성악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10여 차례 연습을 통해 무대에서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축제합창단이다. 지난 2012년 첫 발을 내딛은 후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김강규와 고신대학교 교수이자 부산트리오 멤버인 피아니스트 권준이 이끌고 있으며, 2024년 올해 무대에서는 신동 재즈 트럼펫터로 잘 알려진 꼭다경 연주자가 함께 무대를 빛내준다.

(재)부산문화회관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오프닝 공연 '키즈 시네마 with 애니메이션 OST'

일 시 | 1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꼬마 관객들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시리즈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토요일의 ㅋㅋㅋ'라는 유쾌한 부제와 함께 열리는 이번 무대는 어린이들이 클래식 공연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 어린이들과 클래식의 거리를 좁혀 둘도 없는 친구로 만들어준다. 이번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오프닝 공연에서는 명쾌하고 재미있는 해설과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소연이 해설을 맡고 그가 리더로 있는 클래식 앙상블 '엘 파르렛'이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화-Ensemble

일 시 | 1월 27일 토요일 오후 3:00, 7:3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이단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현악, 목관, 금관 등 다양한 장르의 앙상블을 듀오, 3중주, 4중주, 5중주 등 다채로운 편성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드보르작/피아노5중주 제2번 작품 81
 헨델-할보르센/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파사칼리아
 게리 쇼커/두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춤곡
 쇼스타코비치/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차이콥스키/현악6중주 '피렌체의 추억' 등
 • 지휘, 지도/백승현(수석지휘자)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어린왕자

일 시 | 2월 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4일 일요일 오후 1:00, 4: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극단이 2024년 첫 무대로 선보이는 어린이 뮤지컬 '어린왕자'.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극단이 마련한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출신의 어린이들이 직접 출연하는 작품으로,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3개월간의 트레이닝을 거쳐 극단 단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올해 무대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어린왕자'로 관객들과 만난다.

- 원작/생똥쥐베리
- 작사, 연출/김지용 • 작곡, 편곡/전현미
- 안무/ 홍충민

부산시민회관

추드시 댄스 컴퍼니 창단 및 정기공연 일상에서 한국무용을 만나다

일 시 | 1월 7일 일요일 오후 7:00 **소극장**
문 의 | 추드시 댄스 컴퍼니 010-5426-1185



남녀노소 누구나 춤을 즐길 수 있도록 춤과 사람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 모인 추드시 댄스 컴퍼니의 무대.

지난 2020년 부암동 집 앞 작은 공간에서 시작하여 젊은이들의 메카 전포동을 거쳐 처음으로 무대 공연을 갖는 추드시는 이번 공연을 통해 출연자들에게는 무대라는 공간에서 춤추는 박한 경험을, 관객들에게는 무대와 예술이라는 벽을 뛰어넘어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춤 추듯이'라는 말을 풀어 만든 '추드시'는 '누구나 언제나 즐겁게 춤 추듯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 대표/전현우
- 무용/강나연, 김라희, 김미균, 김수연, 김지연, 신유경, 강민정, 박유빈, 신화진, 이연희, 이윤서, 김영은, 황사랑, 이유하
- 연주/오교선, 황선홍, 차민영

지브리&디즈니 영화음악 FESTA-부산

일 시 | 1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A석 4만4천원(만 6세이상 관람)
문 의 | 아트인뮤직 02-525-4420



클래식뿐 아니라 대중가요, 팝, 뮤지컬,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Festival)' 같은 무대를 지향해온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겨울방학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지브리&디즈니 영화음악 FESTA'.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원한 뮤즈이자 영화음악의 세계적인 거장 히사시 조의 '지브리 영화음악'과 디즈니 명곡 커버 영상들로 화제가 된 보컬리스트 이희주와 함께하는 '디즈니 영화음악'을 풀 편성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선율과 다채로운 악기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 지휘/임동국 • 바이올린/박진희
- 마림바/김하영 • 보컬/이희주

어린이뮤지컬 틀러도 괜찮아

일 시 | 1월 1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4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3:3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5만원
문 의 | 극단예일 02-555-0822~3



어린이 관객들이 직접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뮤지컬 '틀러도 괜찮아'. 아동문학가 마키타 신지의 '틀러도 괜찮아'는 초등학교 저학년 필독사이자 국립중앙도서관이 집계한, 최근 10년간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여된 어린이 도서로, 학교 수업 시간만 되면 틀릴까봐 자신감을 잃은 채 입을 꼭 닫는 아이들에게 '학교는 틀러도 되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아이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여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체험학습 공연으로, 손들고 발표할 수 있는 자신감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중요함을 배울 수 있다.

오리지널 과학마술콘서트

일 시 | 1월 20일-21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원대매직 070-4202-2200



과학과 마술이 결합된 유익하고 재미있는 과학마술쇼 '오리지널 과학마술콘서트'.

어린이들에게 과학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우리 실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재미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련한 이번 무대는 마술 속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무대에 올라와 마술같은 다양한 과학 실험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키즈 매직쇼의 대가 최형배 마술사가 진행하는 관객 참여형 사이언스 매직 퍼포먼스로, 오프닝 마술퍼포먼스를 비롯하여 착시현상, 굴절, 베르누이의 원리, 공기대포, 레이저&그림자쇼 등 과학원리를 이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뮤지컬 번개맨 전설의 시작

일 시 | 1월 2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2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6만6천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동그라미 그리기(1577-4868)



어린이들의 영원한 히어로 '번개맨'을 무대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뮤지컬 '번개맨 전설의 시작'. 번개별에 도착한 아차와 아차차는 기억 말소 장치를 이용해 번개맨의 기억을 빼앗는 데 성공하고 가시별대장은 우주의 장난꾸러기 매드크로스를 소환하여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이상 자연현상이 발생하고 행성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등 온 우주의 생명체는 괴로움을 겪게된다. 과연 번개맨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무너진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번 '번개맨 전설의 시작'은 꿈이 담긴 스토리텔링과 화려한 무대효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가족뮤지컬 슈퍼 히어로의 똥 닦는 법

일 시 | 1월 27일-28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5만5천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쉐더화랑이엔티 1800-6567



엄마 아빠도 잘 모르고 학교, 학원에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는 똥 닦는 법을 알려주는 오감만족 코믹 가족뮤지컬 '슈퍼 히어로의 똥 닦는 법'. 지구를 지키는 슈퍼 히어로 쟁쟁맨, 최고의 영웅에게도 딱 한가지 모자란 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똥 닦는 법을 모른다는 것. 어느날 쟁쟁맨은 괴물들과 싸우다가 팬티에 묻은 누런 똥자국이 들똥나버리고 하루아침에 온 도시의 놀림거리가 되고 만다. 결국 백 년 동안 똥 닦는 법을 연마한 똥도사를 찾아가 쟁쟁맨, 그는 과연 똥 닦기 수련을 마치고 다시 최공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작품은 발칙한 상상력과 유쾌한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다.

음악

게네랄파우제 1월 공연

일 시 |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단, 6일 오후 8:00, 26일 오후 7:00)
게네랄파우제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1월 무대.



5일(금) 오후 8:00
Fusion Jazz 80's to 20's
1980년대 Fusion Jazz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The Brand New Havies, Incognito, Jeff Lorber, Lee Ritenour, 그리고 현재 Fusion Jazz뿐 아니라 R&B를 이끌어가는 Masego 등 이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강해진 쿼텟의 새로운 편곡으로 만나는 무대.

- 피아노/강해인 • 베이스/심규환
- 보컬/정세미 • 드럼/홍영호
- 색소폰/손태호



6일(토) 오후 8:00
My one and only love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조금 소프트한 퓨전락을 들려주는 이달현 트리오의 무대로, 특유의 현란한 기타연주와 함께 재즈 그루브를 한껏 느낄 수 있다.

- 기타/이달현 • 베이스/박지민
- 드럼/윤혁성



12일(금) 오후 8:00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재즈피아니스트 연관호가 결성한 연관호퀸텟이 분위기 있고 깊이 있는 재즈 음악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My heart belongs to daddy, No more blues, Sway, New York New York 외 수곡

- 피아노/연관호 • 보컬/문선희
- 플루트/신현아 • 콘트라베이스/최춘광
- 드럼/최성준



13일(토) 오후 7:00
Take A Deep Breath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1월, 바쁘게 서두르기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서민진 밴드의 "Take A Deep Breath" 무대.

• 보컬/서민진 • 기타/김경모
• 베이스/신세영 • 드럼/피오트르 파블락
18일(목) 오후 8:00 일본의 감성을 연주하다 -시게키 오쿠보



게네랄파우제와 재즈피아니스트 민주신이 매월 한 차례 진행하는 '월간 민주신' 2024년 1월 무대. '월간 민주신'은 매월 새로운 동료 뮤지션을 섭외, 음악을 직접 소개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로, 이번 무대에서는 드럼주자 시게키 오쿠보와 함께 일본의 재즈감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Nothing has changed, 널 처음만난 그날처럼, 2023년 8월 29일, My story, Color blocks, Drama, Letter to be sent, Wave subsides

- 피아노/민주신 • 베이스/김대경
- 드럼/시게키 오쿠보



19일(금) 오후 8:00
Fusion#3: Fourplay
음악계의 어벤져스로 불리는 '포플레이(Fourplay)'의 트리뷰트 무대.

지난 1991년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중인 살아있는 전설의 팀 '포플레이'의 음악을 흥영호 퀸텟만의 사운드로 들려준다.

- 기타/송명기 • 색소폰/손태호
- 피아노/강해인 • 베이스/신세영
- 드럼/홍영호



20일(토) 오후 7:00
새로고침 : renewal
피아니스트 정경수, 보컬문수진으로 구성된 리베라민트(Liberamente)의 무대. 'Liberamente'는 '자유롭게'

라는 뜻으로, 오랜기간 함께 연주해온 두사람의 자유로운 음악적 색깔이 묻어나는 팀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색소포니스트 손태호와의 특별한 만남으로 한층 더 풍성한 재즈선율을 만날 수 있다.



27일(토) 오후 7:00 결
국악과 재즈 두 장르가 만나 섬세하고 매력적인 음악을 선보이는 음악그룹 결의 2024년 첫 살롱 콘서트.

'Kyul(결)'은 다양한 소릿결을 의미하며, 결만의 색이 묻어있는 자작곡과 더불어 재즈, 대중가요로 관객과 만난다.

- 피아노&작곡/장세연
- 해금/백진주 • 피리/황지원
- 베이스/박주민 • 드럼/고명석

양상블 카메라타 제3회 정기연주회 오페라 시리즈

일 시 | 1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양상블 카메라타 010-2588-2208



피아니스트 김정주, 김하림, 이수연, 바리톤 박상현으로 구성된 '양상블 카메라타'의 무대.

16세기 말 피렌체의 바르디가에 모인 작곡가, 시인, 학자 및 예술 애호가들의 모임을 일컫는 '카메라타'에서 이름을 가져온 '양상블 카메라타'는 음악 전공 단원뿐만 아니라 타 학문을 공부하는 단원들이 2014년 대원중학교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꾸준히 모임을 가져오다 지난해 2월,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창단연주회를 갖고 활발한 음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2024년 새해를 맞아 김해시립합창단의 전·현직 단원들과 함께 오페라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한다.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제15회 정기 연주회 민요 그리고 발라드

일 시 | 1월 13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Kongnamul 010-3146-8434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로 구성된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지난 2007년 음악과 클라리넷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창단한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은 매주 합주모임을 통해 자기계발과 단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매년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특히 환우, 사회 약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해 오면서 음악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 단장/곽종일
- 지휘/김태훈 • 특별출연/이나영(경기민요)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그 겨울 속으로, 우리

일 시 | 1월 21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3만원(만 5세 이상 관람)
문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송정에 자리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매월 마련하는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무대. 전 세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OST를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Kranse Ensemble 리더, 첼리스트의 서재 공동대표, 어연희(어디서든 '연주 가능한' '히든 플레이스') 대표로 있는 첼리스트 이명료와 피아니스트 박민희, 아코디언리스트 심성훈, 플루티스트 신혜원, 바이올리니스트 이슬기가 대중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브리 대표곡과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 영화 OST, 팝송을 들려준다.

송정에 자리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매월 마련하는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무대. 전 세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OST를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Kranse Ensemble 리더, 첼리스트의 서재 공동대표, 어연희(어디서든 '연주 가능한' '히든 플레이스') 대표로 있는 첼리스트 이명료와 피아니스트 박민희, 아코디언리스트 심성훈, 플루티스트 신혜원, 바이올리니스트 이슬기가 대중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브리 대표곡과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 영화 OST, 팝송을 들려준다.

라에투스 듀오 창단연주회

일 시 | 1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과 피아니스트 김원민으로 구성된 라에투스(Laetus) 듀오 창단연주회. 김주영과 김원민은 지난 2001년 미국 줄리어드 음대에서 처음 만나 지금까지 오랜 기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음악적인 깊이를 나누어 왔다. 김주영은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 학사, 줄리어드 음대 석사, 맨하탄 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스트링 아데소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김원민은 스위스 베른 음대와 미국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중국 쑤저우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 연주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Laetus'는 라틴어로 'colorful'이라는 뜻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레퍼토리와 세련되고 정제된 음악으로 청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제2회 Momento 정기연주회 순간을 노래하다

일 시 | 1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의 | 모멘토 010-6299-8261



어린 성악전공자에서부터 현재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성악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는 Momento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해 7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Momento는 부산의 젊은 성악가들이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선배 성악가와와의 콜라보를 통해 선후배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단장/안성진 • 예술감독/서치환
- 테너/이상훈, 서치환
- 베이스/김기환, 안성진
- 소프라노/성태민, 추애숙, 이지혜, 정원진, 도규원
- 메조소프라노/정민지 • 바이올린/김민경
- 피아노/전희정, 김현정

부산시민교향악단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월 28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민교향악단 010-9081-4731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을 가진 부산시민들로 이루어진 부산시민교향악단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20년 설립된 후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진솔한 마음으로 실력을 쌓아온 부산시민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지휘자 정현진의 지휘로 베토벤의 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지휘자 정현진은 현재 부산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콘브리오', 부산학생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먼트 서곡 작품 84
베토벤/교향곡 제1번 다장조 작품 21
베토벤/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연극

연극행소

일 시 | 2023년 9월 7일(목)-2024년 1월 7일 (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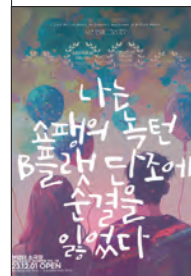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유쾌하게 풀어낸 코미디극 '행소'. 대한민국 이혼율이 90%를 돌파하는 시대, 행복한 가정을 5년간 유지하면 50억을 주는 보험상품이 등장하면서 한 가족이 도전한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만 이상하게 모이거만 하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가족에게는 5년이라는 시간은 길게만 느껴지는데...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이 가족의 50억을 향한 유쾌한 소동을 통해 점점 붕괴되어 가는 우리의 가족문화를 되돌아본다.

- 작/고석기 • 각색, 연출/한성운
- 출연/천성운, 이재영, 박유진, 이예진, 강홍중, 이규화, 이윤, 최지윤, 한혜림 외

연극나는 쇼핑의 녹턴 B플랫 단조에 순결을 잃었다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2024년 2월 29일(목)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어댑터 플레이스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16세 이상 관람)
문의 | 어댑터 플레이스 911-1447



지난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예술가가 공동제작하여 호평을 받았던 연극 '나는 쇼핑의 녹턴 B플랫 단조에 순결을 잃었다'. 영국의 주목받는 신예작가 세바스찬 가드너의 데뷔작이기도 한 이번 작품은 4년 전 우연히 사랑에 빠진 남녀가 MBTI, 정치성향, 집안배경, 성별차이, 집안 소득 수준 등 모든 것이 달라 계속해 대립하면서도 서로 닮아가는 이야기로 현실적인 대사와 사랑이 갖는 파괴적인 요소까지 가감 없이 보여준다.

- 연출/김기영
- 출연/이설, 이도영

연극 연탄은행

일 시 | 2023년 12월 20일(수)-2024년 1월 28일(일)
 금요일 오후 7:00, 주말 오후 3:00
 (월-목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녹록치 않은 서민들의 삶과 연탄 한 장에 담긴 애환, 그 속에 인간적인 따스함이 묻어나는 연극 '연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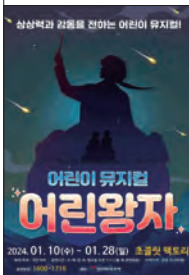
극이 시작되면 50대 초반의 주인공이 힘겨운 듯 숨을 내쉬며 등장한다. 지금 막 가파른 길을 올라온 주인공은 주변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고 관객들에게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번 무대는 오늘보다 내일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공감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 극본/오계영 • 연출/김만중
- 출연/이르신, 양재영, 강규민, 문재희, 고유라

어린이뮤지컬 어린왕자

일 시 | 1월 10일(수)-28일(일) 수요일 오후 11:00
 (월-화요일, 1/17일-1/21일 공연없음)
초콜릿팩토리
 입장료 | 전석 23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극단 바라 1600-1716



상상력과 감동을 전하는 어린이 뮤지컬 '어린왕자'. 사고로 사하라 사막에 떨어지게 된 비행기 조종사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별에서 온 어린왕자. 어린왕자는 별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종사에게 들려주는데, 과연 어린왕자는 별나라 여행을 하며 무슨 일들을 겪었을까?

생텍쥐베리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어린왕자'는 원작의 아름다움을 살려낸 따뜻한 스토리와 감성적인 음악,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즐거운 마술 퍼포먼스까지 어린이 관객들을 즐거운 뮤지컬의 세계로 안내한다.

태양의 서커스 루치아

일 시 | 1월 13일(토)-2월 4일(일) 수-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3:00, 7:30, 토요일 오후 3:3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30 **신세계 센텀시티 내 빅탐**
 입장료 | VIP석 29만원, SR석 19만원
 R석 16만원, S석 13만원
 A석 9만원, B석 7만원
 문 의 | (주)마스트인터내셔널 02-541-6236



'태양의 서커스' 아트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루치아' 부산공연.

'루치아'는 지난 2016년 4월 초연된 후 갖는 첫 내한공연으로, 멕시코의 문화, 자연, 신화를 놀라운 비주얼과 매혹적인 곡예 퍼포먼스로 선보이며 강렬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특히 '루치아'는 스페인어로 '빛(luz)'과 '비(luvia)'의 소리를 합쳐 만들어진 단어로, 투어 공연 최초로 1만리터의 '물'을 도입, 더욱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인 예술의 경지를 선보인다.

2024 라이브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일 시 | 1월 21일 일요일 오후 1:00, 3: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놀이터 010-9611-2073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작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오즈의 마법사'.

이번 작품은 두뇌가 없는 허수아비와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 용기를 얻고자 하는 사자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도로시를 통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작품으로, 스마트 세상에 빠진 우리 모두에게 '폭넓은 생각', '따뜻한 심장', '담대한 용기'를 되찾아준다. 특히 풍성한 드라마와 함께 도로시가 부르는 감미로운 노래 '오브 더 레인보우'를 시작으로 비트 넘치는 랩이 담긴 신나는 댄스풍의 노래까지 흥겨운 노래와 춤로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콘서트

2023 백지영 전국투어 콘서트 BAEK SPACE

일 시 | 1월 6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5만4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11만원
 문 의 | (주)밝은누리 1566-9621

2023-24 이무진 전국투어 콘서트 별책부록

일 시 | 1월 13일 토요일 오후 6: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주)지니뮤직 1522-2274

2023-24 맨데이키즈 콘서트 The Real Voice

일 시 | 1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주)전공이엔티 1522-2061

행사

문화와 예술로 만나는 부산 1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6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우동불**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5일(금), 19일(금) 오후 2:00
우동불(3층)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8일(월) 오후 7:00 사진과 철학
 사진은 어떻게 정신을 반영하는가?
 • 강사/김남호(울산대 교수)

15일(월) 오후 7:00 철학자, 예술가들은 어떤 언어로 우리를 매혹하는가? '코에 난 작은 점에서 디오르 쇼바주 향수까지...'

- 강사/정병연(부산대 영어 영문학과 교수)

22일(월) 오후 7:00 시네마 언노운 : 보이지 않는 영화들 '추격의 목적'(2021, 11min), 너에게 닿기를(2022, 25min)

- 강사/김영광(영화평론가), 손호복(영화감독)

29일(월) 오후 7:00 잘못 이해하는 자유와 민주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대립'

- 강사/최자영(한국외대 겸임교수)

1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매주 월요일에는 R. 슈트라우스 특집 관현악을, 금요일에는 푸치니 서거 100주년 특집 오페라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 프로그램을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페라(푸치니 특집)/토스카(5~6일), 라보엠(12~13일), 나비부인(19~20일), 발퀴레(26~27일), 콘서트(R. 슈트라우스 특집)/신년음악회 명반산책(1일, 6일), 푸치니와 함께하는 요나스 카우프만(8일, 13일), 교향시 '영웅의 생애', '돈 후안', '틸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죽음과 변용'(15일, 20일),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돈키호테'(22일, 27일), 교향시 '알프스 교향곡', '가정교향곡'(29일) 일요특선 오페라/베르디 '라 트라비아타'(7일),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14일), 비제 '카르멘'(21일), 로시니 '세비아의 이발사'(28일)

김옥균의 클래식뮤직 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음악 연주회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2개월 10만원
문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뮤직 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음악 감상과 더불어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연주회 실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빈필 신년음악회' 실황
월드뮤직 스페셜 '아일랜드 켈틱음악특집'
바로크 음악특집 '비발디 생애와 음악'
한국가곡컬렉션 '창작 한국가곡 감상회'
오페라감상실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K클래식 아티스트의 위상(임윤찬, 박상혁 편)

제191회 알바트로스 시낭송 새해, 희망, 행복 주제 시낭송회

일 시 | 1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0149

- 출연/김승희 시인 외 회원&초대시인
- 초청 음악가/최대호(코크 싱어), 고충진(클래식기타)

전시

부산현대미술관 기획전 노래하는 땅

일 시 | 2023년 9월 23일(토)~2024년 2월 18일(일)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
문의 | 부산현대미술관 220-7400~1



토착어의 재생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류의 위기를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6개의 주제를 만들고 그에 해당하는 토착어와

예술작품을 짝을 지어 보여주는 기획전 '노래하는 땅'.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토착어로는 소멸 위기에 놓인 아메리카 인디언과 일본 아이누 선주민의 언어와 제주 해녀어, 그리고 세계의 토착어와 함께 생물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국제 비정부기구 '테라링구아(Terralingua)'의 활동을 함께 선보인다.

자연생태를 탐구해온 국내외 해외 선주민 출신의 미술가를 비롯해 음악가, 소설가, 디자이너 등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한다.

고은사진미술관+KT&G 상상마당 올해의 작가전 서동신, 조준용, 조진섭

일 시 | 2023년 11월 25일(토)~2024년 2월 18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에바 알머슨 특별전 : 에바 알머슨, Andando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2024년 3월 24일(일)
피아크 2,3F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 어린이 1만3천원(예매시할인)
문의 | PARK 070-8693-9758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개관 특별전 가장 가깝고, 가장 은밀한 역사

일 시 | 2023년 12월 23일(토)~2024년 2월 25일(일)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문의 | 부산근현대역사관 607-8001

活語會 | '살아있는 말 모임' 김대연 초대개인전

일 시 | 1월 13일(토)~2월 12일(월)
갤러리 한스
문의 | 갤러리 한스 784-0233



2019년 대구국제오페라 축제, 전국무용제 캘리그라피 디자인, 포천막걸리체 개발에 참여한 실력파 작가로, 캘리그라퍼라는 외국말이 싫어 '맛글씨작가'라는 순우리말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연 작가 초대 개인전. 김대연 작가는 대구특산품이라고 지칭될 만큼 팬층을 확보한 위트있고 유머러스한 '이치랄달력'을 매년 작가 특유의 글씨체로 작업, 제작하고 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경쾌하고 재기발랄하게 시작해보자는 의미에서 기획한 이번 전시를 통해 붓질의 휘갈김과 먹의 묵직함을 즐기고, 글인 듯 그림인 듯 감각 넘치는 글그림의 매력에 빠져 보기를 바란다.

※ 1월 13일 오후 3:00 opening



국토박물관 순례 1, 2

유홍준 지음/창비/각권 2만원

‘동삼동 패총’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한 반도의 신석기 시대 유적을 배울 때 들어 본 지명이다. 부산에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신석기 유적인 영도 동삼동 패총은 알고 있을 것이다. 전국에 분포한 신석기시대 유적 중에서도 유물이 풍성하게 출토되어 역사적 가치가 돋보이는 곳이다. 유홍준의 ‘국토박물관 순례’는 ‘구석기 시대 - 연천 천곡리’, ‘신석기 시대 - 부산 영도’ 순으로 시작한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전 국가가 박물관임을 널리 인식시켰던 유홍준이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우리 역사를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 각 시대를 대표하는 지역과 문화유산을 만나는 ‘국토박물관 순례’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우리 역사의 진수를 국토박물관 속에서 차근차근 찾아가는 여정이다. 1권 ‘선사시대에서 고구려까지’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고구려시대의 핵심 유적을 다뤘다. 2권 ‘백제, 신라 그리고 비화가야’는 1권 고구려사에 이어 백제와 통일 전 신라의 역사, 그리고 가야의 일부였던 비화가야의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 역사의 가치를 알아가는 여정은 곧 우리 삶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임을 느끼게 하는 책이다.

생선비를 빛 새벽

박희자 시집/책퍼냄열린시/1만2000원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생선 중도매업을 하는 현직 ‘생선장수’ 박희자 시인의 시집. 펄떡펄떡 살아서 뛰는 어시장의 새벽을 담은 첫 시집 ‘부산공동어시장’에 이어 두 번째 시집 ‘생선비를 빛 새벽’에서도 부산공동어시장에 관한 연작시들을 묶어놓았다. 부산공동어시장에서 펼쳐지는 일과 사람들의 모습, 이들의 삶과 생활이 진솔하게 담겼다. ‘넙보아지매-부산공동어시장 19’ 전문을 읽어보자. “비린내 나는 갯가 시장에서/ 앞치마 끈 두르고 나온/ 넙보아지매/ 서른여섯에 혼자되어/ 어미 새우처럼/ 자식들 안고 노점상인 되었다// 개상어 껍질을 벗기다가/ 가오리를 말리다가/ 갈치 꼬리 자른 지 삼십 년이다/ 허리가 그믐달 닮을 때까지/ 생선 자른/ 여든일곱 든 아지매 신발 속에는/ 비린내 묻은 바다가 소금밭이다// 늦둥이 손자 용돈 주는 재미로 장사 나온다던/ 마음 넙넉한 넙보아지매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어느 날부터 결석이다” 넙보아지매는 왜 어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지, 시를 읽는 사람들의 상상과 짐작은 대체로 비슷할 것 같다. 어시장에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시로 승화시키는 일, 박희자 시인만이 볼 수 있는 ‘삶의 현장이면서 문학의 현장’이다.

박물관에서 개성이다

박현택 지음/통나무/1만9500원

박물관 디자이너가 ‘살아 있는 옛 것’, ‘진화하는 디자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 박현택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디자이너로 30여 년간 일하고 정년퇴직했다. 이 책은 전통 문화유산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새롭게 다시보기’를 제안하고, 시대를 넘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한다. 또 디자인의 이념과 표현이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시대정신을 반영해 왔는지 소개하고 있다. 매 꼭지마다 시대적 배경과 소재는 달라도 디자인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스며있다. 저자는 잘 디자인된 것들만이 가치 있는 문화재로 살아남게 됨을 역설한다. 예를 들면 성덕대왕신종은 천년이 넘도록 지속가능한 신라의 ‘사운드 디자인’이다. 종은 소리를 내는 도구다. 음색이나 음파의 미묘한 작용이 동반되어야 좋은 소리다. 그에 더하여 생김새는 물론 상징성까지 잘 구현되어야 최종적으로 예술품의 수준에 이른다. 소리를 내는 도구라는 실용성과 감상 대상으로서의 조형성, 영적인 매개체로서의 상징성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과 제작 전반이 곧 ‘디자인’이다. 단지 오래 되었다고 해서 유서 깊은 문화재가 아니라, 긴 세월을 뛰어넘는 디자인이었던 것이다.

BNK부산은행,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전달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이 지난 12월 13일,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으로부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3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금은 1월 5일부터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24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매년 BNK부산은행의 후원으로 열리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펼치는 화려하고 세련된 실내악의 향연으로, 올해는 1월 20일까지 총 7차례 실내악의 성찬이 차려진다. 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는 이번 후원금 전달식을 계기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과 금융기관이 부산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수행에 함께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부산문화회관-세종시문화관광재단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이 지난 11월 23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서로간의 교류음악회를 추진하는 등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4월 창단 연주회를 가진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세종시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예술단으로,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18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용단 50년사, 극단 25년사 발간



지난해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 부산시립극단 창단 25주년을 맞아 <무용단 50년사>와 <극단 25년사>가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되는 <무용단 50년사>와 <극단 25년사>는 시대 순으로 두 단체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활동 연보 및 관련 인사와의 인터뷰, 칼럼 등 무용단과 극단이 걸어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편, 부산시립예술단이 지금까지 발행한 <교향악단 60년사>, <합창단 50년사>, <무용단 50년사>, <극단 25년사>는 교보문고 eBOOK(www.kyobobook.c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4 상반기 공연프로그램(1월~6월)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4. 1-6월

January - Jun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2024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4. 1. 10.(수)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지휘 | 세이교 김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바이올린 | 한수진 • 소프라노 | 박하나
• 바리톤 | 한규원 • 사회 | 박찬민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개막연주회 스테판 피 재키브 <Mozart & Mendelssohn Concertos with Busan Chamber Festival Orchestra>

문화 | 중극장 2024. 1. 5.(금)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바이올린 | 스테판 피 재키브
• 연주 | 부산챔버페스티벌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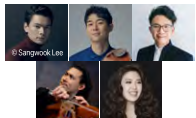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첼리스트 요나 김 & 발레리나 줄리아 로 <Songs That Make Us Dance>

문화 | 중극장 2024. 1. 9.(화)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첼로 | 요나 김
• 발레리나 | 줄리아 로
• 피아노 | 이윤수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Masters and Masterpieces I

문화 | 중극장 2024. 1. 12.(금)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바이올린 | 스테판 피 재키브, 대니 구
• 비올라 | 앤드류 링
• 첼로 | 요나 김 • 클라리넷 | 김윤아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학교 실내악 축제

문화 | 챔버홀 2024. 1. 13.(토) 5:00pm
전석 10,000원
• 출연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부산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술영재교육원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대니 구의 <별이 빛나는 부산> 토크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4. 1. 16.(화)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바이올린 | 대니 구 • 피아노 | 문재원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All about Tango: 이승민 x 친친탱고 x 콰르텟 BCMS

문화 | 챔버홀 2024. 1. 19.(금) 7:30pm
전석 20,000원
• 출연 | 팬텀싱어4 이승민, 친친탱고, 콰르텟 BCMS
※ 7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폐막연주회 Masters and Masterpieces II <양상블오푸스>

문화 | 챔버홀 2024. 1. 20.(토) 5:00pm
전석 20,000원
• 바이올린 | 백주영, 송지원
• 비올라 | 김상진 • 첼로 | 김민지
• 피아노 |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4. 1. 27.(토), 3. 23.(토), 5. 18.(토) 5: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해설 | 바이올린 | 박소연
• 연주 | 엘 콰르텟 외
※ 5세 이상 관람



연극 <돌아온다>

문화 | 중극장 2024.3. 1.(금) 7:30pm, 3. 2.(토) 3:00pm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프로듀서 | 김수로 • 예술감독 | 신영섭
• 작가 | 선욱현 • 연출 | 정범철
• 출연 | 강성진, 김수로 등
※ 14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3. 5.(화)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피아노 | 임동혁
※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연광철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3. 13.(수)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베이스 | 연광철 • 피아노 | 선우예권
※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황수미&안종도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6. 19.(수)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소프라노 | 황수미
• 피아노 | 안종도
※ 7세 이상 관람



한때 우리는 모두 '야구왕'이었다!
창작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문화 | 대극장 2024. 6월경
※ 티켓 오픈 추후 공지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4. 8. 28.(수)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플루트 | 김유빈
※ 7세 이상 관람



EBS방영 원작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가 클래식 음악을 만나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I - 홍학의 무도회

시민 | 소극장 2024. 2. 24.(토) 11:00am
전석 30,000원
※ 전 연령 관람



게임음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3. 9.(토) 5:00pm
• 지휘 | 진솔
※ 티켓 오픈 추후 공지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우아한 발레의 완벽한 컬래버레이션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시민 | 대극장 2024. 3. 15.(금) 7:30pm, 3. 16.(토) 2: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2024 마티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3. 15.(금), 6. 28.(금) 11:00am
전석 20,000원
• 지휘 | 차웅, 정주영 • 해설 | 심정옥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KNN방송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우리 아이 첫 클래식!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II - 악어의 양치시간

시민 | 소극장 2024. 4. 20.(토) 11:00am
전석 30,000원
※ 전 연령 관람



이 시대 중년들을 위한 유쾌한 위로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문화 | 중극장 2024. 4. 6.(토) 3: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작, 연출 | 김영순
• 출연 | 이홍렬, 김태향, 이상민, 김정하, 이윤미, 허운
※ 16세 이상 관람



세계를 감동시킨 뮤지엄 판타지 어드벤처 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시민 | 대극장 2024. 5. 11.(토)~12.(일)
11:00am, 3:00pm
VIP 55,000원 R석 44,000원 S석 22,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5. 8.(수) 7:3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첼로 | 미샤 마이스키 • 바이올린 | 사샤 마이스키
• 피아노 | 릴리 마이스키
※ 7세 이상 관람



스튜디오 지브리 OST와 Last Carnival,
Long Long Ago 등 Acoustic Café 대표곡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 지브리 OST**

시민 | 대극장 2024. 6. 15.(토) 5:00pm
VIP 77,000원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문화예술 '찐팬'을 위한 렉처콘서트
미술관 옆 콘서트홀

문화 | 중극장 2024. 5. 10.(금), 7. 19.(금),
9. 6.(금)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미술 해설 | 이주현
• 음악 해설 | 손지현
• 연주 |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 7세 이상 관람



부산연극이 낳은 괴물신인 '옆집우주'의 최신작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시민 | 소극장 2024. 6. 22.(토) 3:00pm
전석 20,000원
※ 12세 이상 관람



동화의 감동과 발레의 우아함이 환상적으로 그려진 명작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시민 | 대극장 2024. 7. 12.(금) 7:30pm, 7. 13.(토) 2: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 거인

문화 | 대극장 2024. 1. 19.(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백승현
- 피아노 | 정규빈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

문화 | 중극장 2024. 2. 6.(화) 7:30pm



제608회 정기연주회 보로딘을 위하여

문화 | 대극장 2024. 2. 27.(화)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최희준
- 바이올린 | 송지원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I

문화 | 중극장 2024. 3. 8.(금) 7:30pm



제609회 정기연주회 고전적 낭만

문화 | 대극장 2024. 3. 22.(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백승현
- 피아노 | 임효선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2024. 4. 18.(목) 7:30pm

- 지휘 | 키릴 카라비츠



제61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키릴 카라비츠

문화 | 대극장 2024. 4. 19.(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키릴 카라비츠
- 첼로 | 문태국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4. 5. 10.(금) 7:30pm

- 지휘 | 백승현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줌인(Zoom-in) 1

문화 | 중극장 2024. 5. 24.(금) 7:30pm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대극장 2024. 6. 20.(목) 7:30pm

- 지휘 | 백승현



제611회 정기연주회 하지축제

문화 | 대극장 2024. 6. 21.(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지휘 | 백승현
- 피아노 | 박규희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4. 2. 29.(목) 7:30pm

- 지휘 | 그랜트 거슨



특별연주회 화이트데이 로비콘서트

문화 | 대극장 로비 2024. 3. 14.(목) 11:00am

- 지휘 | 임희준



제192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문화 | 대극장 2024. 5. 3.(금) 7:30pm

5. 4.(토) 11:00am, 3: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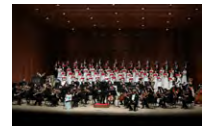
- 지휘 | 이기선



제193회 정기연주회 부산·창원 교류음악회 <베르디 레퀴엠>

문화 | 대극장 2024. 6. 27.(목) 7:30pm

- 지휘 | 이기선



부산시립무용단

제89회 정기공연 The Man_장부의 삶

문화 | 대극장 2024. 5. 18.(금) 8:00pm,

5. 19.(토) 5:00pm

- 안무 | 이정운



특별공연

이정윤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4. 7. 25.(금) 8:00pm,
7, 27.(토) 5:00pm

• 안무 | 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24 신년음악회 <청룡이 나르샤>

문화 | 대극장 2024. 1. 24.(수)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Salon>

문화 | 중극장 2024. 2. 27.(화) 11:00am

• 지휘 | 이동훈



제224회 정기연주회

부지휘자 김경수 취임연주회 <내일>

문화 | 대극장 2024. 3. 21.(목) 7:30pm

• 지휘 | 김경수

- 소리 | 박성희 • 랩퍼 | 정상수, 블리스
- 동래학춤 | 이광호 외 • 구음 | 정선희
- 가수 | 정홍일



특별연주회

마리오네트 어린이 음악극 <영도의四季>

문화 | 중극장 2024. 5. 8.(수)-5. 9.(목) 11:00am

제225회 정기연주회

창단 40주년 기념 <불혹의 나이, 100년을 꿈꾸며...>

문화 | 대극장 2024. 5. 23.(목)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중극장 2024. 6. 27.(목) 7:30pm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어린왕자>

문화 | 중극장 2024. 2. 3.(토) 4:00pm, 7:00pm,
2. 4.(일) 1:00pm, 4:00pm

전석 10,000원

- 원작 | 생텍쥐페리 • 작사, 연출 | 김지용
- 작곡, 편곡 | 전현미 • 안무 | 홍충민



제76회 정기공연

명작극장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문화 | 중극장 2024. 3. 14.(목)-3. 15.(금) 7:30pm
3. 16.(토) 5:00pm

1층 20,000원, 2층 10,000원

• 원작 | 톨스토이 • 연출 | 정순지



제77회 정기공연

창작극장 <음악극 나혜석>

시민 | 대극장 2024. 5. 18.(토), 5. 24.(금),
5. 31.(금), 6. 1.(토) 평일 7:30pm, 토요일 5:00pm

전석 20,000원

- 대본, 작사, 연출 | 김지용
- 작사, 작곡, 편곡 | 백현주
- 안무, 움직임연출 | 홍충민
- 지휘 | 임희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4. 1. 27.(토) 5:00pm



제73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4. 3. 19.(화)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2024. 5. 21.(화)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4. 6. 22.(토) 7:30pm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프렌들리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4. 3. 30.(토) 5:00pm

• 지휘 | 천경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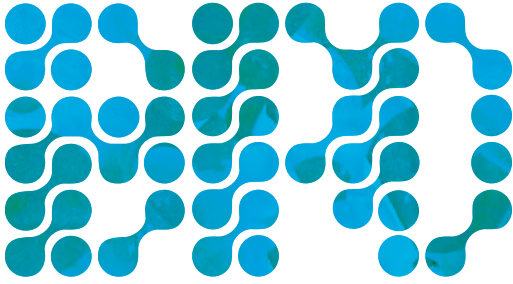
제163회 정기연주회

창작칸타타 Peace

문화 | 대극장 2024. 5. 24.(금) 7:30pm,
5. 25.(토) 5:00pm

• 지휘 | 천경필





2024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상반기 정기연주회

BPO
SYMPHONIC SEASON
2024



607 Mozart and Mahler
부산시향, 거인

1월 19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백승현
피아노 정규빈

Program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말러 / 교향곡 제1번 "거인"

608 in memory of Borodin
보로딘을 위하여

2월 27일 TUE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희준
바이올린 송지원

Program

보로딘 / "이고르 공" 中 '폴로베츠인의 춤'
글라주노프 / 바이올린 협주곡
무소르그스키 - 라벨 / 전람회의 그림



609 A letter to Clara
고전적 낭만

3월 22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백승현
피아노 임효선

Program

슈만 / 피아노 협주곡
브람스 / 교향곡 제1번



610 BPO and Kirill Karabits
부산시향과 키릴 카라비츠

4월 19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키릴 카라비츠
첼로 문태국

Program

리스트 / 교향시 제6번 "마제파"
쇼스타코비치 / 첼로 협주곡 제2번
스트라빈스키 / 페트르슈카

611 Midsummer festival
하지축제

6월 21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백승현
기타 박규희



Program

애덤스 / 고속 기계를 탄 짧은 주행
로드리고 / 아랑훼즈 협주곡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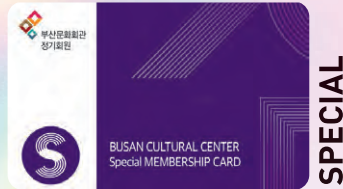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개막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의 Mozart & Mendelssohn

2024년 1월 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Songs That Make Us Dance

2024년 1월 9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World Stars in Busan

2024년 1월 1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학교 실내악 축제

2024년 1월 1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별이 빛나는 부산>

2024년 1월 16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4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Perfect Tango:친친탱고×콰르텟BCMS×이승민

2024년 1월 19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폐막연주회
양상블오푸스 초청연주회

2024년 1월 20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4년 1월 27일(토), 3월 23일(토), 5월 1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홍학의 무도회

2024년 2월 24일(토)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연극 <돌아온다>

2024년 3월 1일(금) 오후 7:30, 2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2024년 3월 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연광철&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종료

2024년 3월 13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2024년 3월 15일(금), 6월 28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2024년 4월 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악어의 양치시간

2024년 4월 20일(토)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미술관 옆 콘서트홀

2024년 5월 10일(금), 7월 19일(금), 9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2024년 5월 11일(토)~12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 지브리 OST 종료

2024년 6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황수미&안중도 듀오 콘서트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종료

2024년 7월 12일(금) 오후 7:30, 7월 13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2024년 8월 28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정기
임말섭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주)미성하이텍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홍재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신한춘 (주)금정화은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삼강종합건설(주)
성원기 하나유치원 원장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수 열가 대표
이성임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현숙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정명선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 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 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 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면세포인트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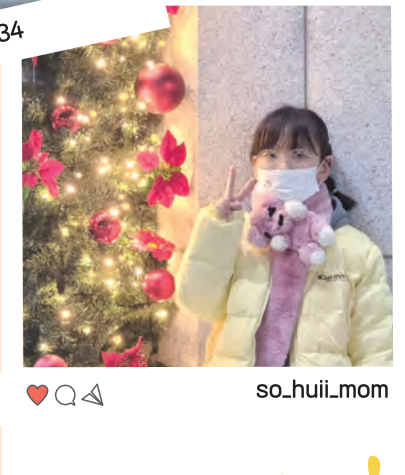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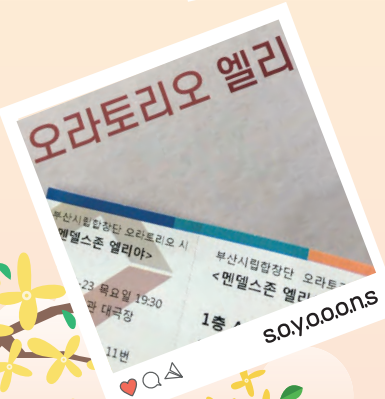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1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2월호

COUPON

COUPON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4. 1.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 한 잔에 음악 한 스푼을 더하다

MUSIC TALK

아지트 *Agit*

'커피도시 부산' 타이틀에 맞게 부산을 대표하는 주요 카페에서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 커피 그리고 음악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음악과 커피가 있는 우리만의 아지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산시립예술단TV 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스트리밍 됩니다.

출연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진행 | 윤도현밴드 베이시스트 박태희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받는 사람

이름

주소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모바일 엽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2024

01

JANUARY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부산시립극단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원작 생텍쥐페리
작사/연출 김지용
작곡/편곡 전현미
안무 홍충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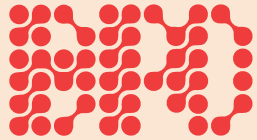
어린 왕자

2024.
2.3.(토) 16:00, 19:00
2.4.(일) 13:00, 16:00
부산문화회관 증극장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문의전화
051)607-6000(ARS 1번)
전석 10,000원 / 3개월 이상 관람가

607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Mozart and Mahler

부산시향, 거인

지휘 백승현
피아노 정규빈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말러 / 교향곡 제1번 "거인"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문의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2024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3.5 TUE 19:30

피아노 **임동혁** 리사이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6만원 | S 4만원 | A 2만원



*Dong-hyek
Lim*

II

3.13 WED 19:30

베이스 **연광철**

피아노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6만원 | S 4만원 | A 2만원



*Kwang-cheul
Yeon*



*Ye-kwon
Sun-woo*

III

6.19 WED 19:30

소프라노 **황수미**

피아노 **안종도**

듀오 콘서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6만원 | S 4만원 | A 2만원



*Su-mi
Hwang*



*Jong-do
An*

IV

8.28 WED 19:30

플루트 **김유빈** 리사이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 5만원 | S 3만원



*Yu-been
Kim*

World Competition Winner Series

2024 (재)부산문화회관 키즈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1월 27일(토)

'키즈 시네마 with
애니메이션 OST'

3월 23일(토)

클래식으로 만나는
명작 동화
'오즈의 마법사'

5월 18일(토)

클래식으로 만나는
명작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토요일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2024 BUSAN CHAMBER FESTIVAL

별이 빛나는 부산

2024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5 - 20 January 예술감독 | 김 동 욱

| 티켓 | 3/2/1만원(공연별 상이) | 예매 |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 문의 | 051.607.6000 (ARS1번)